

자습서
정답친해

고등 국어 **하**

(박안수 외) 6~9 단위

6 함께 만드는 세상

(1) 두근두근 내 인생

확인 문제 ①

013쪽 1 ⑤ 2 ①

- 1 '장 씨'는 '아름'네 옆집 할아버지로, '아름'과 우정을 나누며 '아름'에게 형같이 의지가 되는 존재일 뿐 '아름'의 친할아버지는 아니다.
- 2 선한 인상의 30대 부부가 '지난주에 방송 나왔던' '아름'을 알아보는 것으로 보아 '아름'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뒷좌석에 탄 '젊은 여자'는 '아름'을 본 후에 짜증을 내며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있다.
 ③ 30대 부부는 '아름'을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젊은 여자'는 '아름'에게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의 승객들이 모두 개인적으로 '아름'을 아는 것은 아니다.
 ④ '아름'이 '대수'의 택시를 타고 있는 것은 아픈 '아름'이 '대수'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데다, '아름'이 '대수'의 택시를 타고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대수'는 '아름'과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손님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름'을 택시에 태우는 것은 아니다.

확인 문제 ②

015쪽 1 ⑤ 2 ④

- 1 발단 부분에서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거나 암시되는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그러나 갈등 관계가 발단에 전부 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부분에는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아름'네 가족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 2 '밝은 분위기,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웬지 주눅이 드는 아름이.'라는 부분에서 '아름'이 자신과 달리 건강하고 걱정 없는 또래 아이들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대수'와 '미라'가 '아름'이 서로 자기를 닮았다고 다투는 모습에서 '아름'을 아끼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에서 서로를 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⑤ '미라'는 '아름'의 말을 듣고 기특하게 여기며 '아름'이 자신을 닮았다고 좋아하고 있다. '대수'와 '아름'은 택시에서나 한강에서나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③

017쪽 1 ① 2 ⑤ 3 ⑤

- 1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할배, 외계인, 아버님, 골룸 등에 빗대어 놀리고, 모자를 낚아채 벗기는 등 괴롭히며 빈정대고 있다.
- 2 이 장면에서 '아름'과 불량한 학생들 간의 갈등은 '아름'의 환상 속에서 해소된다. 즉 '아름'의 환상 속에서 '대수'가 불량한 학생들을 멋지게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 해학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 3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할배', '외계인', '아버님', '골룸' 등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놀리고 있다. '효자 아저씨'는 나이 들어 보이는 '아름'에 비해 젊어 보이는 '대수'를 놀리는 표현이다.

확인 문제 ④

019쪽 1 ④ 2 ② 3 모자, 선글라스

- 1 'S# 15'에서 '주치의'가 한 말로 보아, '아름'은 언제 심혈관이 터져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2 '주치의'는 '아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미라'에게 화를 내고 있다. 또 '아름'이 심각한 상태임을 직접 듣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따라서 '주치의'가 '아름'을 귀찮게 구는 환자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완자맨의 풀이** 인물의 심리는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인물의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어. <보기>에서는 '아름'이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떤 소재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봐.
 'S# 16'에서 '아름'은 모자와 커다란 선글라스로 자신을 가리고 있다. 또한 천천히 걷는 '미라'를 잡아끄는 모습에서 '아름'이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 함을 짐작할 수 있다.

확인 문제 ⑤

021쪽 1 ⑤ 2 ⑤ 3 ③

- 1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라는 '미라'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2 '장 씨'는 평소보다 멋을 낸 옷차림으로 촬영장에 찾아오며, '아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장 씨'를 꼭 자 우쭐해한다. 이를 통해 순진하고 꾸밈 없는 '장 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3 '아름'은 '서하'와 전자 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설렘을 느낀다. ③과 같이 만약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았다면 답장을 쓰는 것에 망설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 편지를 주고받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답풀이] '아름'은 처음에 '서하'에게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인다. 그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동갑내기 소녀가 자신을 좋아해 줄지, 자신이 상처받지는 않을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도 될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등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확인 문제 6

023쪽 1 ⑤ 2 ② 3 친구

1 '큐(cue)'는 방송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나 연기자에게 대사, 동작, 음악 따위의 시작을 지시하는 신호이다. '장 씨'를 인터뷰하는 이 장면에서도 '승찬'이 '장 씨'에게 말을 시작하라는 신호로 쓰였다.

2 '미라'는 '아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무래도 힘들겠지?'라며 촬영에 미련을 보이는 '승찬'을 쏘아보며 '보고도 몰라?'라고 화를 낸다. 따라서 '미라'는 '승찬'이 '아름'을 계속 촬영하는 것에 반대함을 알 수 있다.

3 인터뷰에서 '장 씨'는 계속해서 엔지를 내다가 결국 '아름'은 '내 친구'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장 씨'가 '아름'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7

025쪽 1 ② 2 ④ 3 ①

1 '아름'은 병세가 악화되어 주치의의 권고대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아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경우 병원에서 바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의 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아름'은 '서하'에게 답장이 안 오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전자 우편함을 계속 확인한다. 이를 통해 '아름'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또래 친구인 '서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 '전전반측(顛轉反側)'이다. **[오답풀이]** ② 초지일관(初志一貫)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을 뜻하는 말이다.

③ 위기일발(危機一髮)은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절박한 순간'을 뜻하는 말이다.

④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⑤ 비일비재(非一非再)는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을 뜻하는 말이다.

확인 문제 8

027쪽 1 서하 2 ⑤ 3 ③ 4 ⑤

1 '서하'는 '아름'에게 '언제 살고 싶어지니?'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름'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 'S# 52'에 제시된 몽타주는 모두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장면들은 결국 아름이가 삶의 어떤 순간들을 가지고 평화롭다고 여기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참고 자료 ++ 복선

복선이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의미한다. 인물의 대화와 행동, 주변 환경, 배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진행과 방향을 예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3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제시한 순간들은 건강한 사람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평화로운 일상이다. '아름'은 그런 일상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고,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인 '미라'와 '대수' 말고도 동네 사람들의 일상도 섞여 있으므로 공통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아름'이 떠올리는 장면은 언제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트램펄린을 뛰는 아이들, 텔레비전을 보는 아저씨,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 등은 모두 평범한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⑤ '아름'이 떠올리는 장면들은 모두 아픈 '아름'이 살았던 나날들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4 이 시나리오는 '아름'을 통해 평범한 삶의 행복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아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에서도 부적절하다.

- 01 ② 02 ⑤ 03 ③ 04 택시 05 ⑤ 06 ② 07 ⑤
08 ③ 09 평가. '아름'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장 씨'를 친
근한 별명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10 ⑤ 11 ④ 12 ①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⑤

0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창작된 시나리오이다.
(가)와 (나)는 '대수'의 택시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 (다)는 병원에서 주치의가 '아름'의 상태를 말하는
장면, (라)는 '승찬'이 '장 씨'를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이
처럼 시나리오는 각 장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갈래이다.

[오답풀이] ①은 서정 갈래, ③은 교술 갈래, ④는 극 갈래 중 희곡,
⑤는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02 (가)에서 '대수'가 택시에 탄 손님들에게 '아름'을 태운 이
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할 뿐, '아름'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장 씨'는 할아버지인데도 '아름'을 '친구'라고 표현
하고 있다.

② (라)에서 '승찬'은 '미라'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지.'라며 촬영을
바로 포기하고 있다.

③ (다)에서 '아름'은 두통이 심했을 텐데도 엄마인 '미라'에게 말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름'이 부모님께 걱정 끼치는
것을 미안해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다)에서 '미라'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아름'에게 '답답하고
속상해하며'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라'는 아프다고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는 '아름'을 안쓰럽게 여김을 짐작할 수 있다.

03 **완자샘의 풀이** 반응을 묻는 문제는 그 장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같다. (가)에 나오는 등
장인물인 '대수', '아름', '남편'과 '부인', '한 젊은 여자'가 각각 어
떤 대사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 그 다음 선지에서 인물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추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봐야겠다.

'대수'는 택시를 타는 손님들에게 '아름'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손님
들이 '아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
다고는 볼 수 없다.

04 (가)에 나타나는 '대수'의 택시는 '대수'와 '아름'이 함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아름'을 대하는 '남편', '부인', '여자',
'여학생'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05 '장 씨'는 혹시나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촬영장
주변을 맴돌고 있었으면서도 ㉠에서 '아, 뭐……. 나요?'
라고 물으며 인터뷰에 관심이 없었던 듯이 천진하고 천
연덕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장 씨'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촬영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이로 보아 촬영 팀 사람
들을 친구처럼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승찬'이 '아름'의 인터뷰를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
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③ '아름'을 위한 인터뷰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인터뷰
를 사정을 보아 하는 것은 아니다. '장 씨'는 인터뷰가 하고 싶어서
계속 촬영장 주변을 맴돌았다.

④ '장 씨'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으며, 바로 앉을 자
리를 찾는 점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 **완자샘의 풀이** 문학 작품 감상의 가치는 작품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이 글을 바탕으로, 자신
의 삶을 성찰하거나 확장하는 감상이 아닌 것을 찾아보자.

〈보기〉에는 독자가 문학 작품을 통해 작품에 구현된 삶
을 간접 경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확장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기
준으로 '장 씨'를 평가한 것은 〈보기〉를 참고로 한 감상
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인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적
절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아름'네 가족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았기 때
문에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작품 속 인물이 되어 본다는 가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였기 때
문에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확장했
기 때문에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07 〈보기〉에는 문학 활동을 통해 타자의 삶을 깊이 있게 탐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은 조로중
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 '아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
여 줌으로써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는 타자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였다. 또 문학 작품을 통해 타
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②, ③ 〈보기〉에서는 타자와 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
하고 있지, 타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보기〉에서는 문학 활동이 작품에 등장하는 타자와 그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문학 활동에는 한
계가 있다는 감상은 이러한 〈보기〉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08 〈보기〉의 작가는 '아름'이 겪는 에피소드들이 현실 속 우
리들이 '다치고 넘어지고' 하는 경험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다치고'는 현실
에서 우리가 겪는 아픈 경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름'이 불량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
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험에 가깝다.

- 09 (라)에서 ‘아름’과 ‘장 씨’는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년과 할아버지라는 차이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있으며, 늙어간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아름’은 ‘장 씨’를 ‘짱가’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세대와 나이 차이를 넘어 격의 없는 친구처럼 대하고 있다. ‘장 씨’ 역시 인터뷰에서 친구라고 말한 것처럼 ‘아름’을 편하게 대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짱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 썼다.	☐
‘아름’과 ‘장 씨’의 나이 차이, 세대 차이를 밝히고 이를 좁히는 별명의 역할을 썼다.	☐

- 10 (가)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름’을 배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배타적으로 대하고 괴롭히는 불량한 학생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배타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1 (나)는 ‘아름’을 괴롭히던 불량한 학생들과 ‘대수’가 멋지게 싸우는 장면으로, 이는 ‘아름’의 환상이다. 마치 액션 영화와도 같은 다소 과장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 부정적 인물인 불량한 학생들에 대한 반격을 통해 하고 박진감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아름’의 바람이 담겨 있는 환상으로, 과거를 회상한 것은 아니다.

② 환상을 통해 갈등이 웃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는 않았다.

③ ‘아름’이 자신의 바람을 상상하는 장면이므로, (나)에서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⑤ (나)는 ‘아름’과 불량한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한순간에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이 작품만의 따뜻한 시선과 유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장면이 아니며, 특별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도 않다.

- 12 ㉠에서 ‘불량한 여학생 1’이 ‘귀찮다는 말투’로 말한 것은 ‘아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차 알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으로, ‘아름’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대수’가 ‘아름’을 괴롭히던 학생들에게 오히려 돌려싸여 맞음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던 사건은, ‘대수’의 발차기로 경찰이 뺨을 버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며 이완되고 있다.

③ 열일곱 살에 애를 낳은 것은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경험임에도 ‘미라’는 이를 당당하게 말하며 ‘아름’을 격려하고 있다.

④ ‘장 씨’와 ‘아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그들이 평소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장 씨’와 ‘아름’은 몸이 늙고 아프다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이이다.

- 13 ‘아름’과 ‘서하’가 건강하고 풋풋한 소년, 소녀로 등장하는 것은 ‘서하’의 상상이 아니라 ‘아름’의 상상이다. ‘서하’가 보낸 전자 우편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서하’는 ‘아름’과 ‘아름’의 부모님 얼굴을 알고 있다.

- 14 이 글과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독자 또는 관객이 인물의 심리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보기>의 소설에서는 ‘자학했다’, ‘우울했다’ 등과 같이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비해 <보기>에서 인물의 심리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서사 갈래와 다른 극 갈래의 특징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전달함
-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함
-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관객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파악해야 함
- 장면이나 분위기 구현을 통해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 제약이 있음

- 15 Cut to(컷 투)는 장면 전환 기법으로 주로 같은 장소에서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나)에서도 전자 우편을 확인하던 ‘아름’의 모습이 반복되다가, Cut to(컷 투)를 통해 시간이 경과된 후 ‘서하’의 편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어진다. ㉡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면의 이음이나 강조, 정리 등과 같은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Insert(인서트)에 대한 설명이다.

- 16 (다)에는 건강한 몸을 지닌 ‘아름’과 ‘서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아름’은 ‘서하’에게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답장을 쓰지 못하고 망설인다. 따라서 ‘아름’의 성격이 적극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② (나)에 첨부된 사진에는 ‘서하’의 손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하’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라)에는 ‘아름’이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제시되고 있다.

⑤ (다)에 ‘아름’의 상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아름’의 소망이므로 이를 통해 ‘아름’이 환상으로 도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에서는 ‘아름’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어 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17 ‘아름’이 ‘서하’가 보낸 사진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은 답장을 받은 후의 일이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서하’의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 ㉡에서는 ‘서하’의 편지를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는 ‘아름’의 심리가, ㉢, ㉣에서는 ‘서하’의 답장을 여는 ‘아름’의 떨림이 드러난다.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확인 문제

047쪽 1 ① 2 ③ 3 기존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나 통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의미한다.

- 1 (가)에 따르면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은 기존의 천동설이 유지한 ‘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서로를 보완하는 이론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마)에서 ‘밀턴’은 이탈리아의 영광이 몰락한 이유로 ‘갈릴레이’를 침묵하게 만든 것을 꼽고 있다. 이 말은 ‘갈릴레이’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탈리아의 영광이 몰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려하게 꽃피웠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③ (가)에서 ‘갈릴레이’는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기존의 학문인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④ (다)에서 ‘존 스노’는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가설을 세운 뒤 이를 증명하였다.

⑤ (다)에서 ‘존 스노’의 연구가 콜레라 예방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연구 방법에도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 2 이 글에 나타난 ‘용기 있는 이단자’의 예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와 콜레라가 물을 매개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힌 ‘존 스노’이다. ‘밀턴’은 이단자의 예가 아니라, 이단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그의 말이 인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는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철회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이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마치 사실처럼 오랜 세월 전해진 것이다. 이처럼 널리 알려진 인물의 이야기를 제시하면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쉽다.

④ (라)와 (마)를 통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존 스노’라는 인물이 어떻게 콜레라의 전염 경로를 파악했는지, 그가 연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 3 ㉠은 ‘용기 있는 이단자들’이 하는 말로 기존 사회의 통념이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가리킨다. 기존의 체계나 제도 안에서 볼 때 ‘이상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기존 사회의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의미한다	☐
㉠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아 썼다.	☐

소단원 평가 문제

054~057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근거를 조직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한다. 06 ①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환경 보호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 힘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14 ①

- 01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글이 예상 독자로 의학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다고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콜레라의 전염 경로에 대한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글쓴이는 ‘용기 있는 이단자’들을 감싸고 활용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새롭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라는 의미이다.

② 이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춘 설득하는 글이며, 인쇄 매체에 수록하기에 적합하다.

③ 이 글의 주제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로 글쓴이는 이러한 생각을 독자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이다.

④ 글쓴이는 이단적 발상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기존의 통념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각을 내세웠던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02 (다)에서 ‘존 스노’는 공기가 아니라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가설은 오염된 공기로 콜레라가 전염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따라서 ‘존 스노’가 기존의 통념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였다고 설명한 ③은 (다)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3 ㉢은 ‘갈릴레이’와 ‘존 스노’와 같은 용기 있는 이단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 낸 과학에서의 발전과 도약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은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에서가 아니라’라고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던 천동설을 부정한 ‘갈릴레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② ㉡은 ‘존 스노’가 물이 콜레라균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생각으로 콜레라가 공기로 감염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③ ㉢은 기존에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 등에도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⑤ ㉤의 ‘밀턴’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글쓰기와 동일한 주장을 펼친 내용으로 글쓴이의 의견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04 설득하는 글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독자에게 전달하여 독자의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급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한 ⑤이다.

05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소재를 선정하고 쓰기 맥락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성을 따지며 자료를 선별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 후, 근거를 조직하여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 개요에 따라 글을 쓰고 평가한 후에는 쓰기 맥락을 고려해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마련한 근거를 조직하여 개요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완자샘의 풀이**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해야 해. 물론 아무 자료나 마구 수집해서는 안 되고, 쓰기 맥락에 적합한 것을 수집해야겠지. 선지에서 쓰기 맥락에 제시된 정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보기>에 제시된 글의 주제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은 이러한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4차 산업 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을 말하는 것이므로, 스마트폰의 기술을 설명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07 환경 보호의 실천을 주제로 한 글을 쓰기로 하였으므로, ⑤ 이민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스트레스의 관계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08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글에 세계 여러 단체의 사례를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학급 게시판에 세계 여러 단체의 사례를 모두 담는 것도 불가능하다.

09 개념이란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말’인데, 글을 고쳐 쓸 때 쓰기 맥락과 관계없이 개념어를 사용하여 글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

설득하는 글의 점검

- 논거의 타당성 점검: 주장이 올바르고 논리적인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충분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함
- 조직의 효과성 점검: 글의 내용이 올바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글 전체에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조직되었는지 점검함
- 표현의 적절성 점검: 문장이나 문단, 글 전체가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점검함

10 (나)는 ‘있어’, ‘있더라도’, ‘아니야’, ‘가자’ 등과 같이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비격식체를 사용하고 있다. 격식체를 사용하여 공식성을 강화한 글은 (가)이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환경 보호를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가)의 내용을 통해 예상 독자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④ (나)에는 글쓴이와 독자가 있는 교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반면, (가)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11  **완자샘의 풀이** 조건에 맞게 쓰는 문제에서, 선지가 제시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답이 될 수 없어. 각 선지가 조건 1, 2, 3 중 어떤 것을 만족하는지 체크해서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선지를 찾으면 답이 되겠지.

④는 (가)에서 언급한 방법 외의 활동(환경 마크가 있는 상품 구입)을 제시하고 있고, 내용상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한 두 번째 문단 뒤에 자연스럽게 덧붙일 수 있으며, 환경부라는 출처를 밝힌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선지	<조건 1> (가)에서 언급한 방법 외에 제시	<조건 2> 두 번째 문단 뒤에 이어짐	<조건 3> 자료의 출처 제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2 ㉠은 환경 보호가 어렵지 않음을 밝혀 독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표현에서 독자들에게 대한 질책은 찾아볼 수 없다.

13 (나)의 예상 독자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직장인’으로 수정한다면 격식을 갖추어 글을 써야 한다. 내용과 논조는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글을 고쳐 쓴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의 내용과 논조를 유지하였다.	☐
서술어를 바꾸어 격식체로 썼다.	☐

14 설득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글이 주는 감동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읽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의 태도이다.

- 01 ① 02 ⑤ 03 ㉠의 학생들은 '아름'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아름'의 겉모습만 보고 행동하고 있다. 반면 ㉡의 '미라'와 '장 씨'는 '아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서 '아름'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아름'을 이해하며 공감을 나누고 있다.
04 ③ 05 ② 06 ④ 07 ① 08 ① 09 ② 10 ⑤
11 ② 12 ② 13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⑤

01 이 글은 시나리오로,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여 쓴 문학 작품이다. 작가의 실제 경험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은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글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열여섯 살 소년 '아름'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이야기다. (가)~(마)에는 편견과 불편함을 담은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못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미라', '장 씨'와 애정을 담은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03  **완자샘의 풀이** ㉠과 ㉡의 인물들이 '아름'과 어떤 관계인지 먼저 파악하면 돼. ㉠의 사람들은 '아름'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을 뿐 '아름'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야. ㉡의 사람들은 '아름'을 진정으로 아끼는 가족이거나 친구지. 이들이 '아름'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자.

(가), (나)의 학생들은 겉모습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름'을 시기해하고 혐오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아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학생들과 '아름'이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한편 (다), (라)의 '미라'나 '장 씨'는 '아름'과 오랜 시간 함께했기 때문에 '아름'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 ㉡의 차이를 분명하게 썼다.	☐
㉠과 ㉡ 각각이 '아름'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바르게 파악하여 썼다.	☐

04 (마)에 나타나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순간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며, 이는 평범한 일상의 '아름'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름'이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일들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아름'은 13년 동안 병원을 다니고, 수없이 위기를 넘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름'이 낫기 힘든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 씨'와 '아름'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며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④ (가)에서 택시에 탄 '여학생'은 '아름'을 알아보고 친구에게 귓속말로 이를 전해 주고 있다.

⑤ (다)에서 '미라'는 막내 외삼촌의 일화를 말해 주면서 '아름'에게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걸어도 돼."라고 하며 '아름'을 격려하고 있다.

05 (나)에서 불량한 학생들은 '아름'을 보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조절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아름'은 밝은 분위기,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모습에 주눅이 들어 있으므로 대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에서 '미라'는 당당하게 보란 듯이 걷자고 '아름'을 격려하고 있으므로, 힘 있고 따뜻한 목소리로 연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라)의 '장 씨'와 '아름'은 둘 다 높은 몸을 가지고 있어 공감하는 사이이므로 나란히 앉게 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마)에 제시된 살고 싶어지는 순간은 사소하다고 여길 법한 풍경들이지만, '아름'이 소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06 ㉢에서 '장 씨'는 자신이 늙고 아픈 몸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삶을 체념하거나 비관적인 자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07 (가)는 인물의 삶을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고, (나)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논설문이다. 따라서 주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가 아니라 (가)이다.

08  **완자샘의 풀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 (가)는 단순히 인물의 모습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아름'과 '미라'의 모습이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가)에는 '아름'의 외양이 남다른 것을 보고 힐끗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러한 시선을 불편해하는 '아름'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09 (가)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름'의 불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10 (나)는 첫 문장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나)의 앞에는 (나)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⑤ 우리 사회가 새로운 생각에 너그럽지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1 ㉔로 인해 ‘아름’은 창피함을 느끼고, ‘미라’는 ‘아름’이 창피함을 느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갈등이 발생한다. 이처럼 몸이 불편한 ‘아름’을 힐끗대는 시선은 ㉔ ‘사회적 편협한 시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12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는 먼저 소재를 선정한 후에 쓰기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료 수집, 근거 마련, 개요 작성, 글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즉 글의 목적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지, 내용에 따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나)의 글쓴이는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하며,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주장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도록 썼다.	☐
완성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완자샘의 풀이** 글쓰기 계획 중에서 제시된 글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찾으라는 것은 결국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야.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지의 내용을 글에서 찾을 수 있는지 비교해 가면서 읽어 보. (나)에는 인터넷 학급 게시판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환경 위기 시계’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 오염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15 (나)의 1문단에서는 환경 위기 시각을 통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㉑), 2문단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문제 상황(㉒)과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3문단에는 재활용의 실천 사례로 의정부에 있는 한 고등학교(㉓)를 제시하고, 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방안(㉔)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서는 환경 보호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만 서술되어 있을 뿐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언급하지 않았다.

16 (나)에는 덴마크의 실천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쓴이가 ㉔를 찾아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나)의 2문단에 토양 오염이 대기 오염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의 순환』이라는 책을 찾아보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② (나)에 제시된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3문단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의정부의 고등학교를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 3문단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17 (다)의 교육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학생 자치의 개념과 필요성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㉔을 ‘학생 자치에 대한 만족감 부족’으로 수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능력 부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㉑의 현황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나)-1과 (나)-2를 보면 회의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간 부족의 문제도 드러나므로, ‘시간, 공간 부족’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2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항목을 참고하여 ㉔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2의 결과를 참고하여, ㉑의 해결 방안을 ‘학생 자치의 중요성’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18 II-2-(2)는 학생 자치와 관련된 문제점 중 ‘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 위주의 학교생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전문가(학교 정책 연구원)의 견해와, 관용적 표현(‘눈 가리고 아웅’)을 사용한 것은 ㉔이다.

오답풀이

선지	〈조건 1〉 II-2-(2)에 해당 하는 내용	〈조건 2〉 전문가의 견해 추가	〈조건 3〉 관용적 표현 사용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고득점 평가 문제

068~071쪽

01 ③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⑤ 07 ②
08 ⑤ 09 ④ 10 ②

01 <보기>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삶이 아닌 당대 주체의 보편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의 화자를 보통 사람과 다른 개별적 특성에만 주목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작품에 나타난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고유한 가치와 신념 체계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② <보기>에서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은 당대 주체의 보편적 문제를 보여 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⑤ <보기>에서 독자가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관점이다. 즉, 작품이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보는 태도이다.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읽을 때는 일단 작가가 살았던 현실 세계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후에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작품 속에 진실하게 드러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02 (가)에서 ‘대수’의 택시에 타는 손님들은 ‘아름’을 보고 반가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수’의 택시는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03 (다)에서 화자는 가난 때문에 외로움이나 두려움, 그리움이나 사랑 등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을 슬퍼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는 발견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에서 화자가 보는 도시의 밤풍경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③ 5~7행에 제시된 현실과 대조를 이루는 고향의 모습이 10, 11행에 제시되어 있다.
⑤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다)의 화자인 ‘나’는 가난 때문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감정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마지막 부분인 ‘힐끗거리는 눈빛에 ~고 개를 숙이며 사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나’는 가난 때문에 그리움이나 사랑조차 버려야 하는 현실을 슬퍼하고 있고, <보기>의 ‘나’는 ‘노인의 얼굴’과 ‘시한부 인생’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④ 두 작품 모두에서 ‘~고 해서 ~을 ~겠는가’와 같은 형태의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설의적 표현이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다)의 화자가 겪는 가난이나 <보기>의 화자가 겪는 시한부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바가 아니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게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두 화자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기 힘들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다.

05 (마)에서는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로 인해 이단적 발상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는 유명한 과학자인 ‘갈릴레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②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가)에서는 천동설이, (나)에서는 콜레라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믿었던 사실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뻔했던 사례’라고 하였으므로 비판적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존 스노’의 연구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과학에서의 사례를 사회나 조직으로 확장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06 **▶완자쟁의 풀이** 우선 (가)~(다)에 제시된 사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겠지? ‘갈릴레이’와 ‘존 스노’는 모두 과학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었고, 당시의 권력층과 같은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 즉 이단적 발상을 통해 발전과 도약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제시된 선지를 살펴보자.

(가)~(다)에는 과학 분야에서 이단적 발상을 통해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 냈던 ‘갈릴레이’와 ‘존 스노’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의학의 권위자인 ‘갈레노스’의 이론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이론을 증명한 ‘하비’의 사례가 가장 적절하다.

07 ㉠의 ‘통념’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에서처럼 한 명의 사람이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뜻의 ‘상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나)의 첫 문단에서는 글쓴이의 경험을 근거로 독자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제시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말하며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 등 예상 독자인 어른들이 실천할 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이나 분리배출 등 학생들이 실천할 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09 (가)에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글쓴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 (가), (나)는 모두 설득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을 쓸 때는 주제, 매체, 예상 독자와 같은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또한 주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주장의 내용을 독자의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1) 국어의 문법 요소

확인 문제

087쪽 1 모시고 2 ㉠ 3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셨다./
잡수셨다./드셨다. 4 ㉠ 5 ㉢ 6 아까 넘어 둔 빨래
가 이미 말라 있다. 7 ㉡ 8 ㉢ 9 ㉤ 10 ㉤

- 1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제시된 문장의 청자는 어머니, 주체는 아버지, 객체는 목적어인 할아버지이다. 화자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아버지께서'에서 '께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높임 표현이다. '가셨어요'에서 선어말 어미 '-사-'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며, 종결 어미 '-요'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이다.

- 2 ㉠에서는 청자인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어휘 '저'와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였다. ㉡에서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였다. ㉢에서는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 3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를 활용하여 '는'은 '께서'으로 고치고, '밥을 먹다'는 특수 어휘를 활용해 '진지를 잡수(시)다' 또는 '진지를 드시다'로 고쳐야 한다.

- 4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에 해당한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온다고 한 ㉠은 미래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 5 ㉢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 부사어 '어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 부사어 '내일'과 관형사형 어미 '-ㄹ'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ㄹ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였다.

㉣ 부사어 '장차'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였다.

㉤ 부사어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였다.

- 6 완료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이다. 완료상을 만들 때에는 '-아/-어 있다' 또는 '-아/-어 버리다'를 쓴다.

- 7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작자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인용한 말이나 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인터넷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8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쓰는 반면,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쓴다. 큰따옴표를 사용한 ㉡만 직접 인용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 인용문이다.

- 9 피동 표현을 만드는 피동 접미사는 '-이-', '-히-', '-리-', '-기-' 4개이며, ㉤ '-우-'는 사동 표현을 만드는 사동 접미사이다.

- 10 ㉤에서는 '발'이 다른 주체인 '옆 사람'에게 '밟히는' 동작을 당하였으며,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 ㉢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능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소단원 평가 문제

094~09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종일 내리는 비 때문에 날이 어두워졌다./어두웠다./어둡다.
16 ㉢ 17 ㉤ 18 ㉠ 19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다고 혼잣말을 했다.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뵈러 가셨어.

- 01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와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 02 ㉡는 '께서'와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며, 종결 어미 '요'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주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 '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스승님'을 높이고 있다.

㉣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당신'을 높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앞에 나오는 '선생님'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03 높임의 대상은 '사장님'이므로, 객체인 '사장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 '에게'를 '께'로 바꾸고, '물다'를 '여쭙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쭙게.'라고 해야 한다.

04 '나'를 '할머니'로 바꾸면 ①은 생신날, ③은 껌, ④는 '드시라며/잡수시라며', ⑤는 '드리셨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는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임 표현이므로 '나'를 '할머니'로 바꾸더라도 고칠 필요가 없다.
→ 할머니의 생신날,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맛있게 드시라며(잡수시라며) 케이크를 선물로 사 드리셨다.

05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에 따라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는데, 더 세부적으로는 여섯 가지로(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로 나눌 수 있다. ①의 '-습니다'는 그중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로, 격식체 중 상대를 가장 높이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②의 '-는구먼'은 흔히 쓰이는 '-는군'의 본말로, 비격식체인 '해체'에 해당하며, ③과 ④의 '-요'는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에 해당한다. ⑤의 '-느냐'는 격식체인 '해라체'로, 상대편을 아주 낮추는 표현이다.

참고자료 ++ 상대 높임의 특성과 종결 표현

• 격식체

하십시오체	• 듣는 이를 가장 높여 대접하는 방식 • 종결 표현: -십시오, -습니다, -십시다, -습니까?
하오체	•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높여 대접하는 방식으로 요즘은 잘 쓰지 않음 • 종결 표현: -오, -소, -구려, -비시다, -는구려, -는가?
하계체	•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는 방식으로 요즘은 잘 쓰지 않음 • 종결 표현: -계, -네, -므세, -세, -는구먼, -는가?
해라체	• 듣는 이를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해체와 비슷한 등급임 • 종결 표현: -아라, -다, -는다, -자, -렴, -느냐?, -니?

• 비격식체

해요체	• 듣는 이를 위사람으로 대접하여 높이는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임 • 종결 표현: -아요, -군요, -르게요, -아요?
해체 (반말)	• 해라체와 거의 같은 등급인데, 해라체보다 덜 권위적이고, 더 친밀한 느낌을 줌 • 종결 표현: -아, -지, -야, -르게, -아?, -지?

06 [A]는 둘만의 사적인 대화이므로 친근한 높임 표현을 쓴 반면, [B]는 청취자가 듣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상황의 대화이므로 공손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7 사물에 존칭을 사용하게 되면 손님이 제품보다 낮아지므로 오히려 불쾌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찾다'는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찾으시다'로 쓰는 것이 알맞다. 반면 '없다'의 주어는 '물건'이므로 '없으시다, 안 계시다' 등의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한다.

08 ②에서 '숙제를 다 하고 나니'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시제는 과거 시제로, '되었다'로 고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되겠다'는 미래 시제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숙제를 다 하고 나면'과 같은 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09 <보기>는 선어말 어미 '-ㄴ-'으로 실현된 현재 시제의 문장이다. 따라서 보조 용언 '-고 있다'가 쓰여 진행상이 나타나고, 부사어 '지금'이 쓰여 현재 시제로 표현된 ④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었-'으로 실현된 과거 시제이다.

② 선어말 어미 '-리-'로 실현된 미래 시제이다.

③ 부사어 '어제'와 선어말 어미 '-었-'으로 실현된 과거 시제이다.

⑤ 부사어 '장차'와 선어말 어미 '-겠-'으로 실현된 미래 시제이다.

10 '-던'은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더-'가 쓰인 관형사형 어미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던'은 과거의 일을 의미하므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③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옛날', '어릴 때' 등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자주 쓰인다.

④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며,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⑤ 동작상 중, 진행상에 대한 설명이다.

11 '-겠-'은 미래 시제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⑤는 '내일'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함께 쓰여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다.

②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다.

③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였다.

④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로 사용되었다.

12  **완자맨의 풀이** 제시된 문장의 종결 어미인 '-고 있다'를 통해, 이 문장은 시간 표현 중 동작상, 그중에서도 진행상을 표현함을

할 수 있어. 동작상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용언과 그렇지 않은 용언이 있단다. 제시된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바쁘다’가 동작상을 사용할 수 없는 용언이기 때문이다.

〈보기〉의 문장은 ‘바쁘다’라는 형용사를 진행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색하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지 못한다.

- 13 ②는 ‘앞으로’라는 부사어와 ‘-리-’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지금’이라는 부사어와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부사어 ‘어젯밤에’와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부사어 ‘내일’과 ‘-ㄴ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부사어 ‘오늘 아침에’와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4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ㄴ-’/‘-는-’을 쓰는데,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다.

- 15 ‘어둡다’는 형용사이므로 ‘어두워 있다’처럼 동작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어두워졌다’, ‘어두웠다’, ‘어둡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6 〈보기〉는 김○○ 씨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옮겨 쓴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글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 글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쓰기 윤리를 지키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길이다.

오답풀이 ②, ⑤ 인용 표현을 쓸 때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거나 글의 일부만 뽑아 자기 의도에 맞게 끼워 쓰는 것은 인용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보기〉의 사례와 연결 지을 수 없다.

- 17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쓰는 반면,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조사 ‘고’를 사용한다. ⑤는 간접 인용이므로 ‘승주는 아버지께 할머니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8  **완자 쌤의 풀이** 인용의 방식을 바꾸어 쓸 때, 문장의 의미까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인용 방식을 확인하기보다는 각 문장의 의미 파악을 우선으로 선지를 살펴보면 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쓸 때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종결 어미 등을 문장에 맞게 고쳐야 한다. ①은 ‘이 책을 빌려 달라고 철수가 말했다.’로 고쳐야 원래 의미가 유지된다.

- 19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고’를 사용한다.

- 20 ④는 엄마가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먹도록 시키는 것으로,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물렸다’, ② ‘찢겼다’, ③ ‘뒹이지’, ⑤ ‘달히지’의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21 ③은 ‘-되다’와 ‘-어지다’를 사용한 이중 피동의 형태이다. 따라서 ‘내가 호명되자 깜짝 놀랐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22 ‘발생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따라서 ‘발생된’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피동이며,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23 ⑤ ‘들려졌다’는 ‘-리-’와 ‘-어지다’를 사용한 이중 피동의 형태이다. ‘들었다’를 피동으로 바르게 표현하면 ‘들렸다’가 된다.

- 24 능동문의 목적어 ‘물고기를’이 피동문에서 ‘주어’로 바뀌어, 제시된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 25 ‘나’가 스스로 백일장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동의 형태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은 ‘문학에 관심이 많은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백일장에 참가하였으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6 ㉡는 주체 높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이고, 고친 결과도 적절하지 않다. 객체가 ‘너(영철)’이므로 ‘모시고’는 ‘데리고’로 고쳐 써야 한다. 또 ‘오시래’에서 오는 주체는 ‘나’이고 오라고 한 주체는 ‘선생님’이므로 ‘오시래’는 ‘오라셔’로 고쳐야 한다.

→ 영철아, 선생님께서 너를 데리고 오라셔.

- 27 〈조건〉에 따라 주어인 ‘어머니’에 어울리는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가다’를 ‘가시다’로 표현해야 하는데 과거 시제로 표현하라고 했으므로 ‘가셨다’로 쓴다. 또한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만나러’ 대신 ‘뵈러’를 사용하고, 청자가 나보다 어린 ‘동생’이므로 낮춤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 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을 알맞게 썼다.	☐
〈조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 요소(과거 시제, 높임 표현)를 알맞게 썼다.	☐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확인 문제

- 109쪽 1 ② 2 ④ 3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4 ⑤ 5 ④ 6 ②

- 중세 국어에는 글자 옆에 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내던 방점이 있었다. 방점은 0~2개까지 찍을 수 있었다.
[오답풀이] ①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찍었다.
 ③ 현대에 비해 모음 조화 현상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④ ‘ㅁ’은 현대 국어에서 발음이 사라져 그 발음을 추측할 뿐이다.
 ⑤ ‘ㅁ’, ‘ㅂ’, ‘ㅅ’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다.
- 중세 국어의 높임은 주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실현되었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는 ‘-습-, -줍-, -습-’이 쓰였다.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이-/잇-’을 통해 실현된 것은 주체 높임이 아니라 상대 높임이다.
 ②, ③ 중세 국어에서는 ‘-시-/샤-’, ‘-습-, -줍-, -습-’, ‘-이-/잇-’과 같은 다양한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현했다.
 ⑤ 중세 국어에도 현대 국어와 같이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존재하였다. 화자 높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제시된 그림을 통해 중국과 몽골에서 쓰이던 언어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웃 나라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의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 8종성법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글자만 받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칙이다.
- 제시된 문헌은 『용비어천가』로,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자료이다. ‘ㅂᄫᆞᆫ’, ‘ᄫᆞᆫ’, ‘ㅂᄫᆞᆫ’에서 양성 모음인 ‘ㅂ’과 ‘ㅅ’가 어울려 쓰이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어휘는 현대 국어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의미나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쓰였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③ 중세 국어에서는 △(반치음), ㅁ(순경음 비음), ㅂ(아래아) 등이 사용되었으나, 현대로 오면서 소멸되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ㅁ’, ‘ㅂ’, ‘ㅅ’ 등과 같이 어두에 자음이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음’이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기’를 사용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112~115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③ 07 ④
 08 에 09 ⑤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⑤ 16 중세 국어에 사용되던 주격 조사 ‘ㅣ’가 현대 국어에서는 ‘가’로 바뀌었다. 17 ⑤ 18 ④ 19 ② 20 ⑤
 21 ② 22 ⑤ 23 ⑤ 24 ②

- 〈보기〉에서는 국어를 시대별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이다.

참고 자료 ++ 언어의 특성

자의성	언어의 말소리(형식)와 의미(내용)의 관계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임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나 의미 또는 규칙이 바뀌고, 있던 말이 사라지거나 없던 말이 생김
창조성	한정된 말이나 문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음
규칙성	언어는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일정한 법칙이 있음

- 중세 국어에서는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쓰기를 하였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의미 구분이 되는 곳에 구두점을 찍었다.
- ④는 앞말의 종성 ‘ㅁ’을 그대로 앞말에 적고 뒷말의 초성에 ‘ㅇ’을 적는 끊어적기를 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으로 이어 적은 이어적기를 하였다.
- ‘꽃 :도·코 여·름·하느·니’는 ‘꽃 좋고 열매 많습니다.’로 풀이할 수 있다. ‘:도·코’는 ‘좋고’의 옛말이다.
- ‘아·니’에서는 양성 모음(ㅂ)과 중성 모음(ㅣ)이 어울려 쓰이고 있어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④, ⑤ 양성 모음 ‘ㅂ’과 ‘ㅅ’가 어울려 쓰였다.
 ③ 양성 모음 ‘ㅂ’가 연달아 쓰였다.
- 8종성법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 표기로 허용한다. ‘꽃’에서는 ‘ㅅ’이 받침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8종성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깊은’이 아니라 ‘기쁜’으로 적고 있어 이어적기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양성 모음 ‘ㅂ’가 연달아 쓰였다.

- ④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 방점이 사용되었다.
⑤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 (아래아)’가 사용되었다.

07 ‘·뿌·메’에서 명사형 어미 ‘-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명사형 어미 ‘-기’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쁘·들, ·뿌·메’ 등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뫓·디’는 원래 ‘·소·뫓·디’인데 8중성법에 따라 ‘·초’를 ‘·시’로 바꾸어 쓴 것이다.

③, ⑤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 방점이 나타나고,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 (아래아)’, ‘·뵤(순경음 비읍)’이 나타난다.

08 ‘나·랏 :말·쑈·미 中·등·國·꺈·에 달·아’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의 조사 ‘에’는 현대에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격 조사 ‘와/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09 어두 자음군은 말 그대로 초성 자리에 둘 이상의 음운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보기>에서는 그중 현대 국어로 와 된소리로 변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예가 ‘·쁘·들’이다. ‘쁘’는 현대 국어에서 ‘뫓’으로 변하였다.

10 ‘놈’은 중세 국어에서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했던 것이 현대로 오면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풀이 ①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으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예이다.

②, ⑤ ‘·뵤·성·이’와 ‘·사·름·마·다’는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④ ‘·여·엿·비’는 ‘가엿게, 불쌍하게’라는 뜻에서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예이다.

11 <보기>에서는 중세 국어의 이어적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이 잘 드러난 예는 ‘·쑈·르·미·니·라’이다. 이를 끊어적기로 표기할 경우 ‘·쑈·름·이·니·라’와 같이 적게 된다.

12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적을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든 것이다. ④와 같이 중국의 문자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말을 만든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우리나라를 독립된 주체로 인식한 세종 대왕의 자주정신이 드러난다.

②, ⑤ 쉽고 편리한 글자라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③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13 훈민정음 서문에서 ‘得·득은 시를 씨·려’라고 되어 있다. 즉, ‘시·려’는 ‘싫다’는 뜻이 아니라 ‘得’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쁘·들 시·려 퍼·디’는 ‘뫓을 퍼지’로 풀이할 수 있다.

14 ‘일·흙·을’, ‘·뫓·춤·이니·라’ 등에서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쓰였다.

|오답풀이 ①, ② ‘· (아래아)’나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은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

③ ‘아·니 :흙·이’에서 명사형 어미로 ‘-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孔·공·지’, ‘·을·중·지·조’ 등에서 『세종어제훈민정음』에서와 달리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15  **완자샘의 풀이** ‘받·조·온’에 대한 문제니까, 먼저 ‘받·조·온’을 분석해 보자. ‘받·조·온’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선어말 어미 ‘-조·-이’야. ‘-조·-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것을 기억하며 선지를 꼼꼼히 살펴봐.

‘받·조·온’은 ‘받·은’으로 해석되며, 해당 문장에서 ‘부모’라는 객체를 높이고 있다. 이를 현대 국어에서 ‘내리신’으로 바꾼다면 객체 높임법 대신 주체 높임법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孔·공·지’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 쓰였으나 이를 현대 국어로 풀이하면 ‘공자가’, ‘공자께서’가 된다. 따라서 주격 조사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17 <보기>에서는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얼·굴·이·며’는 ‘형체와(형체며)’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글에 사용된 단어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는 ‘형체(㉠)’를 뜻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안면’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대 국어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완자샘의 풀이** 중세 국어 역시 우리말이므로 읽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현대 국어를 읽듯이 글자를 발음해 보고, 그 발음과 비슷한 현대 국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돼. 예를 들어 ‘글·우·샤·뒤’는 [가라샤대]로 읽히니까, 현대 국어의 ‘가라샤대(말씀하시되의 뜻)’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일·흙’은 ‘일·흙(15세기) > 일·흙(16세기) > 이름(현재)’으로 표기는 바뀌었으나 뜻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 이 글은 공자가 증자에게 효도에 대해 일러 주는 내용으로, 공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효도의 시작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상하지 않는 것이며, 효도의 마지막은 입신양명하여(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부모님께 받은 몸을 소중히 간수하라는 것이지, 자식의 몸이 곧 부모의 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③ 공자는 증자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지, 공자 자신을 부모처럼 공경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④, ⑤ 효도의 마침은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알리고, 이로써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0 (가)에서는 한자어를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하였고(中·동·國·국·에), (나)에서는 현실음에 맞게 표기하였다(孔·공·子·지).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쁘·들’, ‘·뜨루·미니·라’와 같이 이어적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에서는 ‘일·흙·을’, ‘무·춤·이니·라’와 같이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② (가)에서는 ‘ㅁ’, ‘ㅂ’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고, (나)에서도 ‘ㅂ’이 사용되었다.

③ (나)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줍-’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

④ (나)에서 ‘얼굴’은 중세 국어에서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가)의 ‘·노·미’는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가)에서도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

21 (가)에 쓰인 ‘어·린’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어린’은 ‘나이가 적은’이라는 뜻이므로, 어휘의 의미가 달라진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달아’는 ‘달라’로 활용형이 달라진 예이다.

③ ‘머리털’은 표기와 의미에 변화가 없는 예이다.

④ ‘일흙’은 ‘이름’으로 표기가 달라진 예이다.

⑤ ‘후세예’는 ‘후세’로 조사가 달라진 예이다.

22 ‘·효·도·익’는 현대 국어에서 ‘·효도의’로 풀이된다. 즉 ‘익’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말썬·미’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② ‘·뵈·성·이’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③ ‘·孔·공·子·지’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④ ‘·아·니·흙·이’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쓰였다.

23 ㉠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따라 종성을 표기한 ‘文·문·字·쥬’가, ㉡에는 받침 표기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허용하는 8종성법에 따라 ‘·츠’이 아니라 ‘·ㅅ’을 받침으로 쓴 ‘·ㅅㅅ·디’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따라 종성을 표기한 ‘字·쥬’가 들어가야 적절하고,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했으므로 양성 모음인 ‘·’에 어울리는 ‘·를’을 써야 적절하다.

24 <보기>는 객체 높임에 대한 설명인데,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습-/~줍-/~습-’을 통해 실현된다.

[오답풀이] ① ‘굴·우·샤·디’의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③ ‘거·시·라’의 ‘-라’는 문장을 마치는 종결 어미이다.

④ ‘·혈·위’의 ‘·혈-’은 ‘상하다’는 의미를 지닌 어간이다.

⑤ ‘·後·후·世·세·예’의 ‘예’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행동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확인 문제 ①

119쪽 1 ② 2 ⑤ 3 ⑤

1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2 한글은 적은 문자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고, 모아쓰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며,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음성 인식에 유리하므로 정보화 사회에 유용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3 제시된 표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 및 학생의 수, 각 기관별 유형과 기관에 따른 학생의 수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도별로 한국어 수강생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는 제시된 표를 통해 알 수 없다.

확인 문제 ②

121쪽 1 ⑤ 2 ② 3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 언어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

1 이 글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되고 있다. 글쓴이의 생각에 반대되는 입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운데 2’의 첫 문장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국내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이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끝에서 글쓴이는 우리의 의사소통을 성찰하고 우리말을 올바르게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오염된 물이나 공기가 자정 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언어 사용자들 역시 스스로 언어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설문 조사 결과 및 출처를 밝혀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글쓴이는 비속어 및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상황과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글쓴이는 청소년들이 언어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씀으로써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세대 간의 소통 단절과 언어폭력에 대한 염려를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음을 썼다.	☐
언어폭력으로 번질 수 있음을 썼다.	☐

- 01 ③ 02 ③ 03 지구촌 시대 04 ① 05 ⑤ 06 ⑤
07 ③ 08 ① 09 ① 10 ① 11 스스로 언어생활을 바
로잡음 12 ⑤ 13 ④ 14 ④ 15 ③ 16 ② 17 ②
18 ④

01 이 글은 현재 한국어의 국내외 위상과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가)~(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시, ②는 수필, ④는 논설문, ⑤는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완자쌤의 풀이** '이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이 글의 내용만으로 선지에 제시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 질문의 답을 글에서 찾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답을 찾을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인 거야. 이 글에서는 지구촌 시대에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밝히며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을 뿐, 한자가 한글보다 많이 쓰인다는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다)의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라는 부분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② (다)에서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나)의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⑤ (나)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나라 안팎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는 3,400권가량'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03 현대는 세계가 하나의 마을과 같은 '지구촌 시대'로 여러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다. (가)에 제시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글쓴이가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논의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04 (나)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이야기한 후, 앞으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05 ㉠의 '보다'는 '(“시험”을 뜻하는 목적어와 함께 쓰여) 자신의 실력이 나타나도록 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보다'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완곡한 표현으로) 대소변을 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보조 동사로, '(동사 뒤에서 “-다(가) 보니”, “-다(가) 보면”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뜻하는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됨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남의 결정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6 글쓴이가 ㉠과 같이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한 이유는 (나)에 나타나 있다. 글쓴이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수의 증가,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의 수, 한국어 교재의 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의 수 등을 근거로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많음(㉠)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내국인들의 태도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7 (다)에 따르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이다. 따라서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어 효율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

음소 문자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한 개의 낱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체계 ㉠ 한글, 알파벳
음절 문자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에 대응이 되는 문자 체계 ㉡ 일본 가나

08 (라)와 (마)에서 한국어를 순화하는 일은 정부와 매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가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② (가)의 설문 결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아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섞어 쓰면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첫 문장을 통해 국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다)에서 글쓴이가 염려하는 것은 매체에서 사용되는 정체불명의 새말이나 비속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대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로 새로운 사물이 생겨나면 이를 지칭하는 새말 역시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설문 조사 결과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때가 많다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처럼 설문 조사 결과와 실제 언어생활의 차이를 대조하며, '사람들 대부분이 습관처럼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1 글쓴이는 오염된 물과 공기가 스스로 정화되듯이 언어 사용자들도 스스로 언어를 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2 글쓴이는 '한국어의 세계화'란 한국어 사용 인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세계인의 사고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한국어를 다듬는 것으로 보고 있다.

13 <보기>와 같이 단어를 줄여 쓰거나 자음만으로 표현하면, 지나친 줄임말로 인해 의미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14 <보기>는 휴대 전화 구입 시 흔히 볼 수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 안내문이다. 이를 통해 각종 문서에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5 (가)에 나타난 돌려 말하기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반응과 깨달음을 간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나)에 나타난 속담을 사용한 말하기는 비유적이고 완곡한 표현으로 듣는 이가 말하는 이의 의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직설적인 표현을 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②는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17 이방원은 시조를 통해 정몽주에게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의 충신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시조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③ 시조의 '우리도 이렇게 얹혀져'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이방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④ 시조의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에서 고려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고집하지 말라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⑤ 이방원은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에 찬성해 달라고 회유하기 위해 이 시조를 지었으므로, 적절하다.

18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들으랬다'는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⑤) '살은 쓰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①, ②) 말을 하지 않는 태도가 무뎡뎡하게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은 <보기>의 속담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단원 평가 문제

136~141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① 05 ④ 06 ① 07 ⑤
08 ④ 09 '무엇이 배워졌는지'는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무엇을 배웠는지'라고 고쳐야 한다. 10 ③ 11 ② 12 ㉠
자주 ㉡ 애민 ㉢ 실용 13 ② 14 ① 15 ④ 16 내
가 이루어져 → 내를 이루어 17 ④ 18 ③ 19 ① 20 ③
21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22 ③ 23 ① 24 ④ 25 ②

01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에는 선어말 어미 '-았-/-'였-'과 '-더-'를 쓴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의 경우 '-(으)ㄴ'과 '-던'을 쓴다.

[오답풀이] ① ㉠의 '먹혔다'의 '-었-'은 과거를, ㉡의 '오신다'의 '-ㄴ-'은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② ㉢의 '오신다'의 '-사-'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고, ㉣의 '모시고'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이다.

③ ㉠의 '먹혔다'의 '-하-'는 피동을, ㉡의 '눅혔던'의 '-하-'는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④ ㉢의 '도착했겠다'의 '-겠-'은 추측을 나타내며, ㉣의 '하겠습시다'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02 **[완자쟁의 풀이]**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파악하고, 각 시제의 사건시와 발화시의 순서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문제야. 각 시제의 사건시와 발화시의 순서를 옆에 그려 둔 다음에 문제를 풀면 헛갈리지 않을 거야.

④는 부사어 '지난주'와 과거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한 과거 시제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먼저이다.

03 ㉢ '찾으시는'의 '-시-'는 주체인 손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풀이] ① ㉠ '찾으십니까'의 '-니까'는 듣는 이인 '손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다.

② ㉡ '잡수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③ ㉢ '치아가 약하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을 높여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임 간접 높임 표현이다.

④ ㉣ '드리시면'의 '-시-'는 선물을 하는 주체인 '손님'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드리다'는 선물을 받는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04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보기>의 민준이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능동 표현 대신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05 <보기>에 따라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나타내면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치고, 종결 어미도 어울리도록 고쳐야 한다. 따라서 ⑤는 '영수(는) 어디 갔냐고 어머니께서 민수에게 물어보셨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06 ㉠의 ‘구겨졌다’는 기본형 ‘구기다’에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의 형태이다. ‘구기다’는 어간 ‘구기-’에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지 ‘구-+기-+다’의 형태가 아니다. 즉, ‘-기-’는 접미사가 아니므로 이중 피동으로 볼 수 없다.

07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요’를 사용하고 있으며(상대 높임),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또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를 낮추는 ‘저’와 ‘-니다’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만 쓰였다.

② 청자를 낮추는 종결 어미 ‘-어’를 사용한 상대 높임법이 나타나 있다. 또 부사격 조사 ‘께’와 ‘드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청자를 낮추는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한 상대 높임법이 나타나 있다. 또 ‘뵤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④ ‘께서’라는 주격 조사와 ‘계시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08 ㄹ이 어색한 이유는 진행상과 현재 시제가 결합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쁘다’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형용사는 진행상이나 완료상 등의 동작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09 주체는 스스로의 힘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므로, ‘무엇이 배워졌는지가’라는 피동 표현 대신 ‘무엇을 배웠는지가’라는 능동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피동 표현인 ‘무엇이 배워졌는지가’를 능동 표현인 ‘무엇을 배웠는지가’로 바르게 고쳐 썼다.	☐
‘잘못된 피동 표현’이 쓰였음을 바르게 밝혀 썼다.	☐

10 ㉡ ‘몬흙’은 어말에 두 개의 자음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두 자음군이라 할 수 없다.

11 ‘어엿·비’는 ‘불쌍하게’에서 ‘예쁘게’로 의미가 이동한 어휘이며, ‘어린’ 역시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 어휘이다.

|오답풀이| ① ‘미리내’는 어휘의 소멸, ③ ‘눔’은 의미의 축소, ④ ‘얼굴’은 의미의 축소, ⑤ ‘세수’는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예이다.

12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이, 백성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애민 정신이, 쉽고 편리한 문자를 창제한 것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나고 있다.

13 (나)에서는 주격 조사 ‘이’만이 쓰였다. 이는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굴·샤·디’, ‘일·흙’, ‘무·춤·이니·라’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④ ‘굴·샤·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발·주·온’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 (가)에는 중국식 한자음에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일반적으로 쓰였으며, (나)에는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가 쓰였다. 따라서 ㉠에서는 중성이 없어도 ‘ㅇ’을 표기해 주어야 하며, ㉡에서는 중성에 음가 없는 ‘ㅇ’을 표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한자음으로 적어야 한다.

참고 자료 ++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당시 우리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고친 것으로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의 3성 체계를 갖추어서 표기하였으며, 받침이 없는 글자는 중성에 음가가 없는 ‘ㅇ’을 주로 사용하였다.

예) 御·영궐·궐 → ‘어제’를 ‘영궐’으로 표기함

15 (나)에서 ‘나무’와 ‘물’은 기초(근본)가 튼튼한 조선의 발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소재일 뿐, 서로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 아니다.

16 (나)의 ‘내[川]가 이루어져’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능동문으로 수정하면 ‘내를 이루어’로 고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피동문에서 주어진 ‘내가’를 능동문에서 목적어인 ‘내를’로 바르게 고쳐 썼다.	☐
서술어 ‘이루어져’를 ‘이루어’로 바르게 고쳐 썼다.	☐

17 ‘내·히’는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로, 모음 조화에 따라 ‘이’가 붙은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부루·매’는 ‘부름+애’의 형태로 앞 체언에 양성 모음인 ‘·’가 쓰였으므로 양성 모음인 ‘애’를 사용하였다.

② ‘·므·른’은 ‘름+은’의 형태로 앞 체언에 음성 모음인 ‘·’가 쓰였으므로 음성 모음인 ‘은’을 사용하였다.

③ ‘·구·래’는 ‘구+애’의 형태로 앞 체언에 양성 모음인 ‘·’가 쓰였으므로 양성 모음인 ‘애’를 사용하였다.

⑤ ‘바·루·래’는 ‘바름+애’의 형태로 앞 체언에 양성 모음인 ‘·’가 쓰였으므로 양성 모음인 ‘애’를 사용하였다.

18 ‘이봉정’은 나랏일을 열심히 하시는 선왕을 모실 때에는 그를 보필하느라 살이 찌지 않은 반면, 나랏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광해군을 보필하니 살이 찌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돌려 말하기를 통해 임금이 마땅히 해야 할 나랏일을 열심히 하지 않음을 깨우쳐 주고 있다.

19 <보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 언급된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고'라는 부분과 내용상 연관이 깊다.

20 ㄱ은 (나)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는 문자라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ㄴ은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1 <보기>의 첫 번째 자료는 28자만으로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 있어 배우기 쉽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자료는 뜻글자인 한자는 많은 글자를 익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한글의 우수성으로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 글에서 찾아 바르게 썼다.	☐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22 '외래어'와 '한자어'는 우리말로 인정되어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면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며, 비속어는 세련된 언어생활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말이다.

② '외국어'는 외국의 말로 우리말이 아니므로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는다.

④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로 인식되는 것은 '고유어'이다.

⑤ '비속어'는 저속한 말로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

외국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처럼 쓰이지 않으며 우리말로 바꾸어 쓸 여취가 있는 말을 의미함 (예) 밀크, 플라워, 스커트 등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의미함 (예) 버스, 커피, 컴퓨터, 피아노 등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의미함 (예) 학교, 가족, 자유, 언어 등

23 (마)에 쓰인 표현 방법은 '유추'로, 이는 대상 사이에 유

사성이 있는 경우,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더 쉽고 익숙한 대상으로 미루어 설명하는 방식을 뜻한다.

24 ㉠에는 피동 표현을 써야 할 때 이중 피동 표현을 쓰는 사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ㄴ의 '팔려진다'는 '-리-'와 '-어지다'를 사용한 이중 피동으로, '팔린다'라고 바꾸어 써야 한다. 또 ㄴ의 '찢겨졌다'는 '-기-'와 '-어지다'를 사용한 이중 피동 형태로, '찢겼다' 또는 '찢어졌다'라고 바꾸어 써야 한다.

25 ㉡의 '민원(民願)'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국민들의 원망'을 의미하는 '민원(民怨)'과는 동음이의어이다.

고득점 평가 문제

142~14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받조·온,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습-/~좁-/~습-'을 통해 실현된 반면, 현대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나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09 ㉡ 10 ㉡ 11 ㉡ 12 ㉡
13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기기에 유용하게 쓰인다. 14 ㉡

01 ㉠ '날리시고'의 '-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 '계셨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특수 어휘로, 이때의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 '-졌-'은 현재를 나타내는 '지급쯤'이라는 부사어와 함께 쓰여 현재의 일을 추측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③ ㉠ '날리시고'의 '-리-'는 사동을 만드는 접미사인 반면, ㉡ '들렸다'의 '-리-'는 피동을 만드는 접미사이다.

④ ㉡의 '성함', ㉢의 '연세', ㉣의 '택'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명사이다.

⑤ ㉡은 '계셨다'라는 특수 용언을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은 '모시러', '여쭙는'이라는 특수 용언을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2 ㉡의 '-ㄴ-'은 동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로,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시제이다.

|오답풀이| ① ㉡ '-고 있구나'는 진행상을 표현하는 보조 용언이다.

③ ㉢ '-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④ ㉣ '-어 버렸어요'는 완료상을 표현하는 보조 용언이다.

⑤ ㉣ '-ㄹ-'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미래 시제는 발화사가 사건시에 앞선다.

03  **완자병의 풀이** <보기>는 피동문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방법이 있는 만큼,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피동사에 ‘-아지다/어지다’나 ‘-게 되다’를 또 붙여서 이중 피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 다양한 방법 중 피동사는 딱 한 번만 사용해야 함을 기억하며, 제시된 문장을 탐구해 보자.

‘잇혀졌다’는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를 함께 쓴 이중 피동의 형태이므로 ‘잇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의 ‘드리러’는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이 맞지만 ‘하시더구나’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느니다’는 하십시오체로 격식체이며, ‘-요’는 해요체로 비격식체이다.

② ‘오시라고 해서요.’라고 하면 ‘오시라고’에서 본인을 높이고, ‘해서요’에서 담임 선생님을 낮춘 것이므로, ‘오라고 하셔서요.’라고 바꾸어야 한다.

③ ‘말씀이 있으셨니?’라고 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 한 말을 높여서 표현한 간접 높임이다.

⑤ ‘아버지께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드리면’, ‘할머니께서’, ‘기뻐하시겠조?’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였으며, 종결 어미 ‘-지요?’를 통해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05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불·휘’는 ‘ㅣ’ 모음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말썸·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말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이다.

② ‘·배’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바’ 뒤에 주격 조사 ‘ㅣ’가 붙은 것이다.

③ ‘·노·미’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놈’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이다.

⑤ ‘·내·히’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내·ㅎ’ 뒤에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이다.

06 ㉠과 ㉡은 모두 ‘은’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은 어간 ‘값-’에 어미 ‘-은’이 연결된 것이며, ㉡은 체언 ‘물’에 조사 ‘은’이 연결된 것이다.

07 ㉠ ‘술혼’은 현대어로 풀이하면 ‘살은’이다. 이를 통해 첫 음절의 ‘ㄱ’은 ‘ㅈ’로 변했으나 둘째 음절의 ‘ㄱ’은 ‘ㄷ’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얼굴’은 ‘몸 전체’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안면’만을 뜻하게 되었으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③ ㉠ ‘비·르·소미·오’는 모음 ‘ㅡ’ 다음에 명사형 어미 ‘-움’이 아니라 ‘-음’이 쓰이고 있고, ㉡ ‘몸을’도 양성 모음 ‘ㅗ’ 다음에 음성 모음 ‘ㅡ’가 쓰이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에 어긋난다.

④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은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은 끊어적기가 쓰이고 있다.

⑤ ㉡에서는 어두 자음군 ‘ㅃ’이 쓰이고 있다.

08 부모께 ‘받았다’는 의미로 쓴 ‘받즈·온’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습-/즈-습-/온-’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된다.

평가 기준	확인 ☒
객체 높임법이 드러난 단어를 바르게 찾아 썼다.	☐
중세 국어는 선어말 어미 ‘-습-/즈-습-/온-’을 통해, 현대 국어는 부사격 조사(께)와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됨을 밝혀 썼다.	☐

09 이 글의 글쓴이는 한글의 우수성과 국내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말하며, 한국어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0 <보기>에서와 같이 한국어를 다듬어 나가는 것을 이 글의 글쓴이가 본다면, 이러한 활동이 한국어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1 (마)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미루어 설명하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12 (나)에서는 설문 결과의 결과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ㄱ), ‘이렇게 국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ㄴ).

13 <보기>에서는 영어의 ‘ea’가 ‘ㅣ’로 발음되기도 하고 ‘ㅐ’로 발음되기도 함을 예로 들어 영어에서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한글은 이와 달리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여 음성 인식 기술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치한다는 내용을 이 글에서 찾아 바르게 썼다.	☐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썼다.	☐

14 ㉤은 맞춤법과 높임 표현의 사용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음식’을 높인 경우로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② 형용사인 ‘아름답다’는 동작상으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네 눈은 언제나 초롱초롱하고 아름답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③ 이중 피동 표현으로 ‘발생되어진’을 ‘발생한’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굳이 피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④ ‘말씀’은 선생님과 관련된 것이므로 간접 높임을 사용하여 ‘게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01 ④ 02 ④ 03 밤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⑤ 10 아아

(1) 시조 두 수

확인 문제

153쪽 1 ④ 2 동지·스물 기나긴 밤 3 ③ 4 ⑤

- 1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임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다.

[오답풀이] ① 사물을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만나러 급하게 달려가고, 나중에 이를 견연찍어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②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③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러 달려가는 적극성을 보이는 이는 (나)의 화자이다.

⑤ 임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나열하여 화자의 기대감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은 (나)이다.

- 2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사랑하는 임과 함께 하는 밤’으로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밤이다. 반면, 화자가 겪고 있는 현재인 ‘동지·스물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다.

- 3 (가)는 평시조이고, (나)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주로 중언이나 평민 층에 의해 창작된다. 양반 계층에 의해 창작되는 것은 평시조이다.

[오답풀이] ①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모두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진다.

②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종장 첫 음보는 둘 다 공통적으로 3음절로 고정된다.

④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정형성에서 벗어난 변형성을 지닌다.

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3장 중 어느 한 장이 길어진 형태를 취한다.

참고자료 ++ 평시조와 사설시조

	평시조	사설시조
작자층	양반 사대부 계층이 주로 창작	중언, 평민 등이 주로 창작
형태	3장 6구 45자 내외	평시조의 3장 중 어느 장이 길어진 형태

- 4 시적 화자는 건넌 산에 서 있는 검은 빛과 흰 빛이 섞인 대상을 보고,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간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주추리 삼대였다.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 소재는 ‘주추리 삼대’이다.

- 01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로 (가)와 (나)가 속한 문학 갈래는 시조이다. 기승전결의 전개 방식이 주로 쓰이는 것은 4행으로 창작되는 절구(節句) 형식의 한시이다.

[오답풀이] ① 시조는 고려 말에 시작되어 조선 시대에 대표적인 시가 문학으로 발달하였다.

②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 사설시조는 변형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의 정형화된 형식이 있다.

③ 평시조는 주로 양반 계층이 창작했고, 사설시조는 중인, 평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창작했다.

⑤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으로 구성된다.

- 02 **[완자쟁의 풀이]** ‘화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결국 (가)와 (나) 시조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야. 선지를 읽으며 시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 보자.

(가)의 화자는 임이 없는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임이 오시면 그 밤을 펼쳐 길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 즉 화자는 시간을 잘라내고 싶다는 생각(①)을 하며, 임과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하면서 현재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②). 한편 (나)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다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③)하여 허겁지겁 달려간다. 이처럼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 놓여 있다(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임에게 자신을 떠올리게 할 정표를 보내려는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03 (가)에서 ‘밤’은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이다. 화자는 임이 부재하는 ‘동지(冬至)·스물 기나긴 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04 (가)의 ㉠ ‘너헛다가’는 ‘퍼리랴’와 대립되는 시어이다. 화자는 임이 없는 시간을 춘풍 이불 아래 ‘넣어 두었다가’ 임이 온 날 밤에 다시 펴려 하고 있다. 즉 화자에게 임이 없는 시간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불 안에 넣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시간을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인고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동지’는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으로, 임이 올 따뜻한 봄인 ‘춘풍’과 대립된다.

② 시간적 의미의 ‘밤’을 ‘베어 낸다’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부분이다.

③ ‘서리서리는’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을 의미하는 음성상징어이다.

⑤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이 온 시간을 말한다.

05 (나)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며 화자의 그리움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과장된 묘사로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나)의 ㉠ '거머뿔들'은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을 의미한다.

07 (나)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종장의 남을 의식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유발하여 서민 특유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는 월명사라는 이름난 승려가 지은 작품으로, 서민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대를 베어 내어 서 임이 오시면 밤을 펼쳐 길게 만들고 싶다고 하여 대상과 다시 만 날 날을 상상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 비슷한 물건을 보고 임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다)의 화자는 죽은 누이의 명목을 빌며 미타찰에서 만날 때까지도 닦아 기다리겠노라고 하여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⑤ (가), (나)의 화자는 '임'이 부재한 상황, (다)의 화자는 누이가 죽고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08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이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시조를 말한다. 그러나 전체가 3장으로 구성된다는 것과 종장 첫 음보가 3음절이라는 것은 평시조와 동일하다.

[오답풀이] ① (가)는 평시조로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 준다.

② 시조는 고려 시대에 등장했으며, 처음에는 평시조가 창작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창작되었다.

③ 사설시조는 각 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형태는 초장-중장-종장의 3장 형태를 유지한다.

⑤ 사설시조의 작자는 중인, 평민, 아녀자 등으로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다.

09 (가)는 기녀인 '황진이'가 지은 평시조이고 (나)는 주로 중인과 평민들이 짓던 사설시조이다. 그에 비해 <보기>는 사대부인 '송순'이 지은 작품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해학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③, ④ 임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노래한 (가), (나)와 달리 사대부가 지은 <보기>에는 안빈낙도의 자세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② <보기>에서는 달과 청풍을 화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다.

10 감탄사 '아이'는 누이동생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이에 따른 삶의 고뇌가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되는 부분으로,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2) 속미인곡/진달래꽃

학인 문제 ①

165쪽 1 ⑤ 2 ② 3 관직(벼슬) 4 ④

1 이 시가의 중심 화자인 '여인 2'는 사계절에 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하고 있을 뿐,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해 임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이 시가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리고 있다.

② 이 시가의 화자는 두 여성이다.

③ 이 시가는 가사로, '저기 가는 / 저 각시 / 본 듯도 / 하구나'와 같이 4음보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④ 이 시가는 중심 화자인 '여인 2'와 보조적 화자인 '여인 1'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2 [A]에서 '여인 1'은 백옥경, 즉 원래 '여인 2'가 임과 살던 곳에서 떠나와 해 다 저문 이 시간에 누구를 보러 가는 지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인 2'는 임과 헤어진 이유를 조물주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여인 2'는 '여인 1'에게 임과 이별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3 **완자샘의 풀이** 이와 같은 시가를 읽을 때는 단순히 두 여인의 대화 내용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자, 갈래적 특징에 주목할 수도 있어. 이 시가의 작자인 정철이 사대부였음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해 보자.

이 시가의 작자는 정철로 사대부이자 관료이다. 사대부인 작자의 신분을 고려할 때 임이 사는 '백옥경'은 임금에 있는 한양을 가리키므로 '백옥경'과 이별하였다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시가는 정철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참고자료 ++ 충신연주지사

의미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
특징	- 임금과 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충'을 '남성과 여성'의 '그리움'이라는 개인적 관계로 바꾸어 표현함 -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노래였음
예	정서, 「정과정」, 정철, 「사미인곡」, 「속미인곡」

4 이 시가는 '여인 1'과 '여인 2'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가에 등장하는 '남'은 임금을 가리킨다. ㉠는 '여인 1', ㉡는 임, ㉢는 '여인 2', ㉣는 '여인 2'를 가리키며 ㉤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킨다.

확인 문제 2

167쪽 1 ⑤ 2 구름, 안개 3 ③ 4 ⑤

- 1 이 시가에서 '여인 2'는 입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이는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말을 뜻하는 것인지 입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여인 2'는 입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오늘도 날이 저물었다고 하였다.

② '여인 2'는 멀리 있는 입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여인 2'는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입 계신 창 안에 환히 비추고 싶다고 하였다.

④ '여인 2'는 입의 소식을 알고 싶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고 강을 헤매고 있다.

- 2 '여인 2'는 입의 소식을 들으려 '눅픈 뿔'에 오르기도 하고 '물 7'에 가기도 하였다. '눅픈 뿔'에서는 '구름', '안개'가 '여인 2'와 입 사이를 방해하였고, '물 7'에서는 '벼람', '물결'이 '여인 2'와 입 사이를 방해하였다.

- 3 '여인 2'는 입을 그리워하며 죽어서 '달'이 되어 입을 바라보려고 한다. ㉠의 '낙월'은 멀리서 입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여인 2'의 소극적인 사랑을 뜻한다. 하지만 '여인 1'은 '여인 2'에게 '달' 대신 입의 옷을 적시며 입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준비'가 되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은 적극적인 사랑을 뜻한다. ㉡과 ㉠은 모두 입에 대한 '여인 2'의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② '낙월'은 멀리서 입을 바라보기만 하는 존재이지만, '구준비'는 입의 옷을 적시며 가까이 갈 수 있다. 따라서 '낙월'보다 '구준비'가 입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④, ⑤ '낙월'은 '여인 2'가 죽은 후에 되고 싶은 모습이고, '구준비'는 '여인 1'이 '여인 2'에게 그렇게 되라고 조언한 내용이다. 이는 모두 '여인 2'가 입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므로, '여인 2'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

- 4 이 시가에서는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입과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문학 속 여성 화자의 전통

- 여성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애절하고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이와 같은 여성 화자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음

확인 문제 3

169쪽 1 ② 2 ② 3 ④ 4 ④

- 1 공감각적 심상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시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 시는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③ 이 시는 '-우리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의 4연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것은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반어적 표현이다.

⑤ 이 시는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해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2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이별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1연에서는 입과의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2연에서는 입을 위해 꽃을 뿌려 주며 축복하며, 3연에서는 뿌려 놓은 꽃을 입에게 밟고 가라고 말하는 자기희생적 태도를 보인다. 4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며 인고의 자세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 3 ㉠은 반어법과 도치법이 활용된 표현으로,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이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화자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원래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우리다.'의 순서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도치법이 사용된 것이다.

② 죽더라도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는 것에는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③ 입과 이별하는 것은 슬픈 상황이지만 화자는 울지 않겠다고 감정을 자제하고 있다.

⑤ 화자의 슬픔을 직접 토로하기보다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이별하고 싶지 않은 화자의 본심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참고자료 ++ 반어법과 도치법

반어법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예) 빨리도 오는군.(늦게 오는 사람에게)
도치법	정서의 환기와 변화감을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문장 표현법 예)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 4 화자는 입이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 주며 입을 축복하고 있다. 이는 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입에 대한 사랑과 정서, 화자의 희생적 태도를 담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01 ② 02 ⑤ 03 ③ 04 ③ 05 화자와 임은 조물주 때문에 이별하였다. 이별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06 ②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③ 15 ③

01 이 시가는 가사이다. 시조와 가사는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갈래이다.

오답풀이 ① 가사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창작되어 주로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행했던, 산문적 내용의 운율이 있는 장편의 노래를 말한다.

③ 가사는 4음보의 연속체로 이루어진다.

④ 가사는 시조와 달리 길이에 제한이 없어 강호에서 누리는 감흥, 여행의 경험과 느낌, 현실 비판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⑤ 가사는 조선 초기에는 양반들이 주로 창작하다가 후기에는 양반 부녀자와 서민도 창작하였다.

02 결사 마지막 부분에서 '여인 1'이 '여인 2'에게 '달' 대신 '긋은 비'가 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여인 2'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말이 아니라, '여인 2'의 사랑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안을 조언해 주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② '여인 2'는 임과 이별한 슬픈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고, '여인 1'은 '여인 2'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여인 2'를 위로하고 있다.

③ '여인 1'은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돕는 보조적 화자이고, '여인 2'는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작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심 화자이다.

④ '여인 1'은 '여인 2'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03 **완자샘의 풀이** 여성 화자는 한국 문학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야. 남성 화자였다면 이 시가가 과연 어떻게 느껴졌을지 생각해 보고, 여성 화자 설정의 효과를 선지에서 골라 보자. 이 시가는 충신연주지사로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을 담은 작품이다. 작자인 정철은 남성이지만 관직에서 물러나 임금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정을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그려 냄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애절하게 전달하고 있다.

04 벽에 걸려 있던 등불(반벽청등)은 객관적 상관물로, 임의 부재에 따른 '여인 2'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이 등불이 '여인 2'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여인 2'는 임과 헤어져 임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한다.

② '여인 2'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고 강을 헤매었다.

④ '여인 2'는 꿈에서 잠깐 임의 모습을 보았으나 그림자는 말도 못하고 닭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만다.

⑤ '여인 2'는 차라리 사라져서 지는 달이나 되어 임 계신 창 안에 환히 비추겠다고 하여 죽어서라도 임을 보겠다는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05 (가)의 시구는 (이별한 상황)이 서러워 풀어 생각해 보니 조물주의 탓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이별의 원인을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화자와 임이 조물주 때문에 이별하였다고 썼다.	☐
화자가 운명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음을 썼다.	☐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두 문장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도록 썼다.	☐

06 '달'은 임을 멀리서 지켜보지만 '구준비'는 임의 옷을 적실 만큼 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어 임에게 더 적극적으로 화자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이처럼 '구준비'는 적극적인 애정의 표상이기 때문에 '여인 1'은 '여인 2'에게 비가 되라고 조언한 것이다.

07 이 시가의 작자는 ㉠에서 자신 대신 임금을 모시는 신하에 대한 질투보다는 '가을과 겨울 날'에 임이 편하게 계시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천상 백옥경'과 이별한 상태이다. 벼슬에서 물러난 정철의 상황에 빗대면 이를 한양의 궁궐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너로다 여기심에'는 선조가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긴 것과 연결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으므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던 일과 연결할 수 있다.

⑤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는 정철을 비판했던 동인 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08 '여옛븐'은 현대에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불쌍한, 가엾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09 (가), (나)와 <보기>는 모두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임과 이별한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게 되면 눈물조차 참고 보내드리겠다고 하여, 떠나는 임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다.

② (가)의 화자와 (나)의 중심 화자 '여인 2'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기>의 화자 역시 떠나려는 임에게 자신은 어찌 살라고 떠나느냐고 묻고 있을 뿐이다.

④ (가), (나)와 <보기>에서는 모두 임과의 이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이 나타나지만 해학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와 <보기>에서는 모두 이별에 대한 화자의 슬픈 감정이 드러나지만 이를 이성적 태도로 극복하려는 합리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가)에 음성 상징어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가)는 3행의 시행을 연 단위로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으며(①),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니고 있다(②). 또한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홀리우리다'에서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④), 1연과 4연을 반복하는 수미 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⑤). 이러한 요소들이 (가)의 음악성을 드러낸다.

참고 자료 ++ 음성 상징어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예) 엉엉, 쿵 등
의태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 예) 나풀나풀, 졸졸 등

11 (가)에서는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1연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2연에서는 떠나는 임에게 꽃을 뿌리며 축복한다. 3연에서는 뿌린 꽃을 밟고 가라는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4연에서는 슬퍼도 울지 않겠다는 인고의 자세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12 (가)의 4연에 사용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표면적 의미는 임이 나를 떠나시면 슬퍼도 참고 보내 주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죽도록 눈물을 참아야 할 만큼 임과의 이별이 슬프고 괴로우므로 제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3 (가)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와 같이 '진달래꽃'으로 인해 화자의 처지가 전환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핵심 소재이다. '진달래꽃'은 임이 가시는 길에 뿌려지고, 화자는 임에게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고 말한다. 이로 보아 '진달래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희생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달래꽃'은 붉고 선명한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사랑을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14 화자는 '구름'과 '안개'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산천(山川)'은 물론 '일월(日月)'이 보이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작자인 정철이 유배당한 상황에서 쓴 작품임을 고려한다면 '일월'은 임금, '산천'은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5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을 뜻한다. ㉠은 강가 하늘 아래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는 말로, 화자가 바깥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애이불비(哀而不悲)'는 '슬프기는 하지만 겉으로 슬픔을 나타내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로 사랑하는 임을 보내며 울지 않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처지에 적합하다.

② '설상가상(雪上加霜)'은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구름에 안개까지 겹쳐서 화자가 임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 적합하다.

④ '동분서주(東奔西走)'는 '여기저기 사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님'을 나타내는 단어로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기 적합하다.

⑤ '오매불망(寤寐不忘)'은 '자나깨나 잊지 못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임을 한시라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에 적절하다.

(3) 허생전

확인 문제 ①

185쪽 1 ⑤ 2 ⑤

1 '허생의 처'는 독서를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책만 읽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허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반면 '허생'은 독서를 학문 탐구(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여기고 독서 자체를 즐기는 인물이다.

2 **[완자맨의 풀이]** '허생'과 '변 씨'가 처음 만나 만 냥을 빌려주는 과정을 살펴봐. 두 인물 모두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이처럼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허생'은 가난한 선비이고, '변 씨'는 성중에서 제일 부자이다. '허생'은 일면식도 없는 '변 씨'에게 만 냥이라는 큰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변 씨'는 '허생'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만 냥을 빌려준다. 따라서 '변 씨'가 한번 들어온 돈은 쓰지 않는 자린고비라고 볼 수 없다.

확인 문제 ②

187쪽 1 ④ 2 ④ 3 ③

1 '만 냥'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으로, '허생'은 이 돈으로 과일과 말총을 모두 사들였다가 되팔아서 큰돈을 벌다. '허생'은 '만 냥'으로 매점매석을 하여 큰돈을 벌뿐, 이러한 과정에서 '허생'의 성품이 인정이 많은가의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만 냥'은 '허생'이 매점매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밀천이 되고 있다.

② '허생'은 '만 냥'을 통해 과일과 말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서 큰돈을 벌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한다. 즉, '만 냥'은 이 작품에서 사건을 전개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③ ‘변 씨’에게 당당한 태도로 ‘만 냥’을 빌리고, 또한 이 돈으로 쉽게 큰돈을 버는 모습에서 ‘허생’의 비범함이 나타나고 있다.
 ⑤ ‘만 냥’의 돈만 있으면 쉽게 매점매석이 가능한 상황을 통해 당시 조선 경제의 취약함을 엿볼 수 있다.

2 과일들은 양반들의 잔치나 제사에 필요한 물건으로 일반 백성들이 먹고사는 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말총 역시 양반들이 의관을 갖추기 위해 사용하는 망건의 재료로 생활 필수품이 아니다.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한 데에는 허례허식을 일삼는 양반을 비판하고, 이들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허생’의 의도가 드러난다.

3 말총을 사재기하며 앞날을 예측하는 데서 ‘허생’의 비범함이 드러난다. 즉 ‘허생’은 스스로 결과를 예측하며 말총을 사들이고 있으므로,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하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고 삼남의 길목이 되는 곳으로, ‘허생’은 이곳에서 과일을 모조리 사들인다.
 ② ‘허생’은 만 냥으로 한 나라의 과일을 모조리 사들이고 비싸게 되팔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④ ‘사문(沙門)’과 ‘장기(長崎)’라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여 이야기에 사실성을 더하고 있다.
 ⑤ 이어지는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라는 말에서 ‘허생’이 땅이 좁은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③

189쪽 1 ② 2 ⑤ 3 ②

1 집권층은 변산에 들끓는 군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집권층과 군도들이 결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집권층의 무능함으로 들끓는 군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③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고 도둑으로 사느냐는 ‘허생’의 질문에 군도들이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④, ⑤ 군도들이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라고 한 것에서 평범한 양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군도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2 ‘허생’이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가자,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다고 하였다. ‘허생’은 군도들과 함께 ‘빈 섬’을 훌륭하게 경영하였으므로, 군도들을 심판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땅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 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고 하였다.
 ② 군도들은 ‘빈 섬’에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竹]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③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로, 양식을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고 하였으므로 해외 무역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허생’은 가난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군도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간다.

3 ‘허생’은 빈 섬으로 군도들을 데려가 양민에서 도둑으로 전락한 백성들을 교화시켜 풍요롭게 살도록 하였다. 신분제를 없앴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③ ‘허생’은 양민에서 도둑으로 전락한 백성들을 ‘빈 섬’으로 데려가서 이들을 교화시키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였다.
 ④ ‘허생’은 일본의 속주인 장기도로 가서 비축한 양식을 팔아 은 백만 냥을 얻었다.
 ⑤ 군도들은 땅의 기운이 온전한 ‘빈 섬’에서 농사를 지어 삼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었다.

확인 문제 ④

191쪽 1 화근 2 ③ 3 ⑤

1 ‘허생’은 빈 섬에서 나올 때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이라고 언급하며 모두 데리고 나온다. 이를 통해 지식 계층에 대한 ‘허생’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다.

2 ‘허생’은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변 씨’와 같은 상인들이며 재물이 도(道)를 살찌울 수 없다고 한다. 또, 이자를 합리적으로 받으려는 ‘변 씨’에게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라며 화를 내고 있다. 이는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며 자신이 사대부임을 강조하는 ‘허생’의 생각을 드러낸다.

3 ‘한 늙은 할미’는 ‘허생’의 집 근처에 사는 인물로, ‘변 씨’와의 대화를 통해 ‘허생’의 지난 내력을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허생’은 군도들을 데리고 들어가 빈 섬을 훌륭하게 경영한 뒤 이것을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당시 조선은 백만 냥도 용납이 안될 정도의 취약한 경제 구조였음을 말하고 있다.
 ③ ‘변 씨’는 ‘허생’의 안색만 보고 ‘허생’이 실패하였음을 예측하였다. 이는 겉모습으로 ‘허생’의 성공 여부를 짐작한 것이다.
 ④ ‘변 씨’는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놀라면서 절을 하고 있다.

확인 문제 ⑤

193쪽 1 ② 2 ⑤ 3 재앙

1  **완자샘의 풀이** ‘변 씨’에게 자신이 돈을 번 내력을 설명하는 ‘허생’의 말에서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 선지와 글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며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파악해 보자.

‘허생’은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만 냥을 가지면 죽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2 ‘허생’은 자신이 쓴 매점매석의 방식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경우 백성들의 피해가 클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 이 방법을 ‘허생’이 아닌 사람이 썼을 때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천 냥을 열로 쪼개 열 가지 물건을 사서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이(利)를 취하는 것이 조그만 장사치들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허생’은 한 가지 물건을 독점하는 방식을 썼다.

② ‘허생’이 매점매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 사회의 경제가 취약하였기 때문이다. 유통이 잘되거나 해외 무역 등을 하였다면 한 가지 물건을 독점했다고 해서 값을 몇 배로 받고 되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③ ‘허생’은 만 냥으로 과일을 독점하고 과일값이 크게 올랐을 때 되팔아 이익을 남겼으며 다시 이 돈으로 말총을 매점매석함으로써 큰돈을 벌었다.

④ ‘허생’은 자신이 썼던 방법이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며, 후세에 당국자가 이 방법을 쓰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 3 ‘허생’은 ‘변 씨’가 ‘허생’이 준 돈을 돌려주려 하자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수 없다고 말하고, ‘변 씨’가 양식이나 옷을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라고 말하며 사적인 재물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확인문제 6

195쪽 1 ② 2 ①

- 1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에게 무슨 벼슬에 있는지 묻고, ‘이완’이 대장이라고 말하자, 오히려 기죽지 않고 ‘이완’을 ‘너’라고 부르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③ ‘변 씨’와 ‘이완’은 잘 아는 사이로, ‘이완’은 ‘변 씨’에게 백성들 중에 쓸 만한 인재가 없는지 물었고, ‘변 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고 ‘이완’에게 ‘허생’을 추천한다.

④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에게 ‘와룡 선생’같은 인재를 추천 하겠으니 임금에게 삼고초려를 하게 하라고 제안한다.

⑤ ‘허생’은 ‘조성기’, ‘유형원’과 같은 인재들을 예로 들어 훌륭한 인물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살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2 ‘허생’은 ‘이완’이 찾아왔으나 문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였으며, ‘변 씨’가 ‘이완’이 찾아온 이유를 말했으나 못 들은 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완’으로 대표되는 당시 집권층에 대한 ‘허생’의 반감을 알 수 있다.

확인문제 7

197쪽 1 ④ 2 ⑤ 3 ①

- 1 ‘이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당시 집권층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완’이 ‘허생’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작가의 대리인이 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완’은 실리보다 체면과 예법을 중시하여 ‘허생’의 세 가지 계책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② ‘이완’은 조선 중기의 무관으로, 어영청의 대장으로 일한 실존 인물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실존 인물을 내세워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이완’은 지위가 높은 인물로 집권층을 대변한다.

⑤ ‘이완’은 ‘허생’을 찾아와 세 가지 계책을 듣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면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으로 행동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 2  **완자쟁의 풀이** 이 글에서 ‘허생’이 ‘이완’에게 제안하는 세 가지 계책에는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 실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 ‘허생’과,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이완’의 태도를 비교하며 작가가 무엇을 비판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자.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한다.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를 제한한 것에는 사대부의 허례허식과 북벌론이라는 대의 명분에 대한 허위성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3 당시 집권층을 대변하는 인물인 ‘이완’은 ‘허생’이 제시한 두 가지 계책을 듣고 난색을 표하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허생’은 이러한 ‘이완’의 무능함을 비판하면서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곧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확인문제 8

199쪽 1 ④ 2 ① 3 ②

- 1 ‘허생’의 마지막 꾸밈음에서 사대부에 대한 ‘허생’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허생’은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 예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제안한 세 가지 중 아무 것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완’의 태도에 화를 내고 있다.

- 2 ‘허생’은 자신이 제안한 세 가지 방법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완’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허생’이 ‘이완’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허생'은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했으나, '이완'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크게 분노를 느껴서 마지막으
로 ㉠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분을 지키느라 실천 의지가
부족한 '이완'과도 같은 자들이 집권층에 존재하는 한, 조선의 현실
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 3 이 글은 주인공인 '허생'이 종적을 감추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를 통해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되는 한
편, 독자에게 궁금증과 여운을 남기는 효과를 거두고 있
다. 내용상으로는 '허생'의 주장이 그 당시에는 현실적으
로 수용되기 어려웠음을 암시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208~213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허생'이 능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인물들의 예를 든 것으로 보
아, 불합리한 인재 등용을 비판하고 있다. 14 ② 15 ③
16 ② 17 ② 18 ① 19 ③ 20 ② 21 ① 22 ⑤

- 01 이 글은 연암 박지원이 지은 고전 소설로, 17세기 한반
도 전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학사상과 북학 사상을
바탕으로 명분을 중시하는 양반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있
지만, 이 글에 등장하는 '허생'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참고 자료 ++ 「허생전」이 지어진 당대 조선의 현실

- 물락한 남인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이 퍼짐
- 경제가 파탄해져, 평민들은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움
- 경영형 부농이 생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양반이 생겼으며, 신혼 상인 계층이 등장함
- 존경의 대상이던 양반 사대부가 आयु와 풍자의 대상이 됨

- 02 사대부라 할 수 있는 '허생'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
적이 된 사람들을 빈 섬으로 데려가 구제하였을 뿐, 이
들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군도들은 땅과 처자식이 있다면 도둑이 되지 않았
다고 말하고 있다.

③ 집권층은 군사를 징발하여 군도들을 잡으려 노력하였으나 좀쳐
럼 잡히지 않아 변산에는 군도가 우글거리는 상황이었다.

④ '허생' 한 사람의 매점매석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⑤ 과일은 양반들이 제사상이나 손님 접대에 올리기 위해, 망건은
양반들의 의관인 갓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이다. 이러한 과일과
망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열 배로 오른 것이
고, 이를 통해 양반들이 예법에 얽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빈 돈으로 군도들이 먹을 양식
을 준비하고 빈 섬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군도들이 훔친
돈을 기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 04 '허생의 처'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로, 당시의
전형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고 풍자의 대상이 아니
다. (가)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인 '허생'
이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허생의 처'는 '허생' 대신 바느질품을 팔아서 생계
를 유지하고 있다.

② '허생의 처'는 밤낮으로 글만 읽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허생'
을 비판하고 있다.

④ '허생의 처'는 '허생'에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허생'이 집을 나가 장사를 하는 계기가 된다.

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라는 '허생의
처'의 말을 통해 윤리관과 유교적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05 '허생'은 '변 씨'에게서 돈 만 냥을 빌린 뒤 과일을 매점매
석하여 큰돈을 벌었지만, 개인이 나라의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취약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확인하
였다. 즉, '허생'이 ㉠에서 한숨을 내쉬는 것은 매점매석을
통해 확인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 06 '만 냥'은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장사 밑천으로, 사건
전개의 매개체이다(㉡). 이 돈을 가지고 큰 소득을 올려
빈 섬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허생'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돈을 통해 시장을 어지럽
히고 있으므로 만 냥으로 좌지우지되는 당시 경제 구
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풀이] '허생'이 빈 섬을 경영하여 올린 총소득은 은 백만 냥이
다.

- 07 '허생'은 매점매석을 하여 큰돈을 벌 뒤 군도들을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가 그곳을 경영한다. 이곳에서 '허생'은
농사를 짓게 하고 해외 무역을 하는 등 자신의 뜻을 펼
쳐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따라서 '빈 섬'은 '허생'이
자신의 이상을 시험해 보는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③ '허생'은 빈 섬에 나라의 죄인들이었던 군도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④ '허생'은 빈 섬에서 군도들과 생활하며 해외 무역을 하기도 하지
만, 이는 '허생'이 이상을 실현하는 한 방법일 뿐, 해외 무역의 거점
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⑤ '허생'의 무리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었으므로 독
창적인 문화나 문물을 건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8 (나)에서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려
하였으며, 받지 않겠다는 '허생'의 말에도 여러 가지 방
법으로 권유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허생'이 돈을 받지
않자 '변 씨'가 내심 기뻐하였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허생의 처'가 '허생'이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② (다)에서 '허생'과 '변 씨'가 몇 해 동안 왕래하며 지내는 동안 정 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허생'은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⑤ (가)에서 '변 씨'는 늙은 할미의 말을 통해 비로소 '허생'의 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09  **완자뽕의 풀이** 이 글의 '변 씨'는 '허생'을 몰래 뒤따르기도 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하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변 씨'는 '허생'에게 백만 냥을 어떻게 벌었는지, 왜 재주를 지니고서도 이를 펼치지 않는지 물으며 '허생'이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0 (나)에서 '허생'은 '변 씨'가 주려던 돈도 받지 않고, 많은 재물을 재앙이라 부르면서 멀리하는 등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드러나는 시조는 ③이다.

|오답풀이| ① 산과 물의 속성을 대조하여 인생의 덧없음을 드러낸 작품이다.
 ② 입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④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⑤ 늙음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11 '허생'은 (다)에서 조그만 장사치들의 장사 방법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자신과 이들을 비교하는 것일 뿐, 이들을 대규모 상인 집단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허생'은 자신처럼 매점매석을 하면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되며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② '허생'은 조선은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해외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허생'이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지 않고 물건이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 사라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허생'은 교통을 발전시켜 물건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2 '허생'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변 씨'의 말을 듣고 능력이 있어도 문혀 지낸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서, '조성기'와 '유형원' 같은 구체적인 인물을 예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집권층의 무능과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비판한다.

13 '허생'은 '조성기'와 '유형원'의 예를 들면서, 조선의 불합리한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허생'이 예로 든 인물들이 능력이 있지만 초야에 묻혀 지낸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썼다.	☐
불합리한 인재 등용을 비판하고 있음을 썼다.	☐
'~보아, ~비판하고 있다.'는 문장 형식으로 썼다.	☐

14 '허생'은 조선에서는 만 냥을 가지면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어 수레 전부, 배 전부, 한 고을 전부의 물건을 그물로 훔듯이 모두 사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므로 바다에서 나는 물건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을 독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 '허생'은 천하에 대의를 외치려면, 즉 국치를 씻고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했을 뿐 청나라에 순종하자고 말하지 않았다.

16 이 글은 '허생'과 '이 대장'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허생'은 '이 대장'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시하고, '이 대장'은 번번이 이를 거절하며, 이에 대해 '허생'이 '이 대장'을 크게 꾸짖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만 나타나고,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은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허생'과 '이 대장'이 갈등하고 있으나, 그 해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17 '허생'은 (라)에서 사대부의 예법이라는 것이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지키기보다는 변발하고 호복을 입으며 청나라와 교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대의를 위해 집권층이 기득권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이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하기 위해 양반과 양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북벌을 위해서는 청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와룡 선생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허생'의 말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몸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18  **완자뽕의 풀이** 이 글에는 '허생'과 '이 대장'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라)에서는 '허생'이 급기야 '이 대장'을 칼로 찌르려 하지. '허생'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 (라)만 읽어서는 안 되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봐.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여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이 대장’은 명분이나 예법, 체면 등에 얽매어 이 제안을 모두 거절한다. 즉 ‘이 대장’을 비롯한 사대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막상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이에 ‘허생’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 19 이 작품은 실학사상과 북학 사상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허례허식, 말뿐인 친명배청 정책, 북벌론의 허위의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사상인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에서 ‘허생’과 ‘허생의 처’는 관념과 실리로, ‘허생’과 ‘이완’은 실리와 명분으로, 서로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 갈등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기득권을 찬 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집권층의 정치적 문제, 경제 구조가 취약한 조선의 경제적 문제, 만연해 있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군도가 들끓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등 나라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양반층을 대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당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을 반영한 문학 작품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 20 이 소설은 미완의 결말 구조로 사건의 미해결에 따른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으나,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21 ㉠은 청나라의 문물을 뜻하는 것인 반면, ㉡~㉣은 사대부들의 예법이라 할 수 있다.

- 22 ㉤ ‘백구지국’은 ‘중국 봉건 시대 제후국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를 가리킨다.

대단원 평가 문제

218~223쪽

- 01 ③ 02 ① 03 ③ 04 ③ 05 ④ 06 ③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④ 14 달
보다는 구준비(꿇은 비)가 되라고 조언함 15 반어법
16 ④ 17 ⑤ 18 ① 19 ① 20 ③ 21 ① 22 ①
23 ‘허생’은 형식적인 예법만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 01 (나)의 화자는 입을 그리워한 나머지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 착각하고 달려가고 있으므로 입에 대한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입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2 ‘동지’는 일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인데, 이 밤은 입과 함께 있지 못하는 밤이다. 가뜩이나 긴 밤에 입도 없이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므로 화자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 부재의 시간이자 부정적 시간이다.

- 03 (다)에서 화자는 입이 떠날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 리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전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지극한 사랑으로 볼 때, 이 시구는 이별이 몹시 슬프며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4 이 작품에서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허리가 있다고 표현하며 이를 잘라 내어 이불 아래 넣어 두고, 여러 굵이로 찢어 놓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라는 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나타날 뿐, 두 심상의 전이가 일어나는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에서는 의도한 뜻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뜻을 전하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동지’는 기나긴 밤’은 입의 부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⑤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시간을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과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 것도 아니다.

- 05 (나)는 사설시조로, 평민과 부녀자가 주요 독자층이었으며 평시조와 마찬가지로 3장으로 되어 있고, 종장의 첫 어절은 3음절을 지켰다. 시간이 흐른 뒤 판소리 갈래로 발전한 것은 판소리의 근원이 되는 설화이다.

- 06 (나)의 화자는 입이 온다고 하여 저녁을 일찍 먹고 문 밖에 나가 손을 이마에 대고 멀리 건넌 산을 바라본다. 산 위에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것을 보고 화자는 힘껏 뛰어갔으나 입이 아니라 주추리 삼대였음을 알고 실망한다. 여기서 화자는 뒷집을 진 것이 아니라 ‘이수로 가액하고’, 즉 ‘손을 이마에 대고’ 건넌 산을 바라본 것이다.

- 07 <보기>의 화자는 입과 헤어져 깊은 산에 있다. 따라서 입이 올 리 없으나 화자는 지는 잎과 부는 바람을 입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고, 이런 자신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고 있다. ④와 같이 입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확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나)는 ‘주추리 삼대’를, <보기>는 ‘지는 잎 부는 바람’을 임으로 착각하고 있다.

② (나)는 ‘행여 남을 웃길 뻔했다’라고, <보기>는 ‘어리석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

③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입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⑤ (나)는 초장과 중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갈래	평시조
성격	낭만적, 애상적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만중운산'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자 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중의적 의미를 지님. 중의적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함

- 08 (다)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과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④ '영변에 약산'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⑤ 1연의 내용을 4연에서 변형·반복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 09  **완자쟁의 풀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먼저 각각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야 해. <보기>의 화자는 누이와, (다)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을 각 화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보기>의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결국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다)의 화자 역시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며 자기희생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다)의 화자에게 ②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0 (가)의 중심 화자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등을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표현하고, 낙월이 되어 임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는 등 자연물을 활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진달래꽃을 통해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11 (가)는 두 여인이 등장하여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한 여인은 다른 여인의 하소연을 유도하고, 이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인물이다. 주된 이야기는 한 가지이므로 각자의 사연을 병렬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므로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가 어울린다.

③ (나)의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이자 임을 향한 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는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나)는 임을 떠나보낸 한 명의 여성 화자가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 12 (가)의 중심 화자는 임과 이별한 인물로 임을 그리워하며 임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다. ①의 화자 역시 소식이 없는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늦가을에 농촌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풍요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 속에서 누리는 생활과 안빈낙도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⑤ 임에 대한 굳은 절개와 충절을 드러내고 있다.

- 13 여성 화자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좀 더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작자인 정철은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것이다.

- 14 '여인 1'은 차라리 죽어서 '둘(달)'이 되겠다는 '여인 2'의 말에 임의 곁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구준비(꿇은비)'가 될 것을 조언하고 있다.

- 15 (나)의 ㉠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임이 나를 떠나신다면 슬퍼도 꼭 참고 보내드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울면서 임을 붙잡고 싶으며 제발 자신을 떠나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16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조선이며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등장인물인 '허생'이나 '이대장'의 미래를 알기는 어렵다.

- 17 '허생'은 이인(異人)다운 풍모를 지닌 비판적 지식인으로, (다)에서 사대부의 허위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대부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작가의 대리인과도 같은 면모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 '허생'은 '이대장'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한다. '이대장'은 이를 모두 거절하며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② '허생'은 어영 대장인 '이대장'이 찾아왔지만 놀라기보다는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이대장'은 '허생'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8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허생'의 말 뒤에 세 번째 제책이 나타나므로 ①을 확인할 수 있다.

- 19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지할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에서 현재는 청나라로 유학을 가려는 이가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에서 명나라를 위해 청을 배척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와룡 선생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 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훈적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명나라 유민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허생'의 제안을 '이완'이 거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20 이 글은 '허생'이 사라지는 결말을 통해 '허생'의 비범한 풍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열린 결말을 택하여 뒷이야기를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끝맺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결말과는 다르다.

- 21 '허생'은, 사대부들의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번오기'와 '무령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예를 들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법을 버릴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22 '허생'은 '말이 길다.'는 표현을 통해 현실성이 없는 이론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집권층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와룡 선생'은 제갈공명으로, 조정에서 등용해야 할 뛰어난 인물을 대표한다.

③ '지피지기(知彼知己)'는 적의 사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안다는 뜻으로, 먼저 남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는 '허생'의 말과 의미가 통한다.

④ '허생'은 사대부란 무엇인지 '이 대장'에게 되물으며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리털과 같은 겉치레만 중시하는 사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23 '허생'은 사대부들이 입는 '흰옷', '머리털을 묶는 습속', '넓은 소매의 옷'의 예를 들어, 사대부들이 실리는 추구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법에 얽매어 허례허식에 젖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③~⑤의 공통점으로 형식적인 예법만 중시한다는 내용을 썼다.	☐
'허생'이 사대부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음을 썼다.	☐

01 ④ 02 ② 03 ③ 04 ⑥ 임금 ⑥ 임금에 대한 그리움
05 ① 06 ⑤ 07 ② 08 ⑤ 09 ① 10 ③ 11 ⑤
12 ③ 13 과일과 말총은 겉치레를 중시하는 양반들에게 중요한 품목이다. '허생'은 양반들의 허례허식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과일과 말총을 매점매석했다.

- 01  **완자샘의 풀이** (가)는 시조, (나)는 가사, (다)는 향가 작품이야. 한국 서정 문학의 전통으로 볼 때, 각 갈래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이 어떠한지 떠올리며 선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자.

(다)는 신라 시대에 창작된 10구체 향가로 '아아'와 같은 낙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에서는 이러한 낙구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는 '동지시돌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나)는 '글란 / 싱각 마오 / 미친 일이 / 이셔이다'와 같이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② (가)는 초장-중장-종장의 3단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다)는 기-서-결의 3단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③ (가)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융성한 시조, (나)는 조선 시대에 발생하여 향유된 가사, (다)는 신라 시대에 창작된 향가이다. 따라서 발생 순서는 (다)-(가)-(나)이다.

⑤ (가)~(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문학의 내용적 전통 중 하나이다.

- 02 (가)는 추상적인 개념인 '밤'을 자르거나 넣어 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보기>는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동근지 모난지 긴지 짧은지 그 속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반면, <보기>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보기> 모두 감정이 이입된 자연물이 없다.

④ <보기>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구성을 취하여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에는 자문자답의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와 <보기>에는 모순되는 진술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03 (나)의 화자는 ㉠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구름'과 '안개' 때문에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화자는 부재한 임을 그리워하며 높은 산에 올라 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꿈에서 임을 만난다. 여기에서 시간의 역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의 화자는 자신의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서 임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⑤ ㉠에서 '구름'은 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고, ㉡에서 '바람'은 물가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으며, ㉢에서 '계성'은 화자의 잠을 깨우고 있다.

- 04 '미인'은 원래 사전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하지만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작자 정철에게 '미인'은 임금이다. 또한 '속미인곡'이 '사미인곡'의 속편임을 참고 한다면 두 편의 내용은 모두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룬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㉔에 들어갈 말을 '임금'이라고 바르게 썼다.	☐
㉔에 들어갈 말을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바르게 썼다.	☐

참고자료 ++ 「사미인곡」

「사미인곡」은 정철이 1588년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상 전개가 특징적이다.

- 05 ㉔은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임이 올 미래의 시간'으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다.

- 06 (가)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㉔). 화자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며(㉔), 자신의 희생 의지를 호소하고 있다(㉔). 또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㉔), 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을 뿐 재회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 07 <보기>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해 한 해도 열두 달이고 한 달이 서른 날인데 자신을 보러 올 하루도 없나고 하며 원망과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그리움만 드러날 뿐 임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은 찾아볼 수 없다.

- 08 <보기>의 시조는 창밖에 뭐가 어른거려서 기다리던 임이 오시나 하고 혈레벌떡 나가봤더니 구름 그림자였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나) 또한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 착각하고 달려 나간 내용이다. 즉 <보기>의 '넌 구름'과 (나)의 '주추리 삼대'는 모두 화자가 착각한 대상이다.

- 09 이 글의 '허생'은 허생의 집이 있는 목적골에서 '처'와 같등하고, 안성으로 내려가서 매점매석을 한다. 즉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㉔ 이 글은 소설로, 서술자가 체험한 사실이 아닌 허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㉔ '허생'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허생'과 '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㉔ 실존 인물인 '이완'이 이 글의 뒷부분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인공 '허생'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㉔ 이 글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 소설로, 전기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 10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용되었으며,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11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같등하는 것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허생'은 관념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허생의 처'는 현실적·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정서적 견해가 대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A]에는 글공부만 하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허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허생의 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㉔ '허생'이 10년을 계획했던 글 읽기를 중단하고 집을 나가는 계기가 되는 말이다.

㉔ 글만 읽고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허생'에 대한 불만을 담은 말이다.

㉔ 배가 고파 울음 섞인 소리로 내뱉은 불만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㉔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과일은 없어도 살며, 말총을 몽땅 사들이면 양반들이 상투 바람으로 다니게 된다고 하였다. 즉 과일과 말총은 생필품이 아니라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충족시키는 품목이며, 이를 매점매석한 것에서 '허생'이 양반들의 허례허식에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과일과 말총이 양반들에게 중요한 품목임을 썼다.	☐
'허생'이 양반들의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썼다.	☐

참고자료 ++ '허생'이 독점한 과일과 말총의 의미

'허생'이 시장에서 굳이 과일과 말총을 사들이는 것은 조선이 양반 사회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지배층으로 행사하는 양반에게는 명예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명예를 지키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선 제사를 지내고 손님에게 번듯한 상차림으로 접대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과일이 올라가야 했다. 또 양반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하는데 머리에 망건을 두르고, 망건 위에 탕건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야 했다. 망건, 탕건, 갓의 주 재료가 말총이다. 결국 과일과 말총은 조선 시대 양반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허생'이 이러한 물건들을 매점매석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다.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확인 문제 ①

235쪽 1 ⑤ 2 ③ 3 ③

- 이 글의 서론에서는 문제점과 문제 상황, 외국의 사례가 제시된다. 또한 본론 내용을 안내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  **완자쌤의 풀이** 논설문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쓴이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 글쓴이는 아마도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주장을 제시할 테니까 말이야. 이 글에서는 '서론'을 중심으로 글쓴이가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 글의 '서론'에서 자주 바뀌는 유행에 따라 많은 옷이 버려지고, 옷 구매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 '본론 1'에서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의 제작 기법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④ '본론 1'에서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의류 업체 간의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을 제시하고 있다.
⑤ '본론 1'에서 의류 업체의 사업 성패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확인 문제 ②

237쪽 1 ④ 2 ④

- 디자인 도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신상품을 빨리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과 쉽게 디자인을 도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이지 디자이너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②, ③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하여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원작 디자이너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디자인 도용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④ 의류 업체들은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옷의 생산과 처분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는데 특히 면화는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확인 문제 ③

239쪽 1 ⑤ 2 ④ 3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한다.

- 글쓴이는 옷의 가격이 높더라도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입하라고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결론 ①'에서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② '결론 ②'에서 해당 기업에 옷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여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③, ④ '결론 ③'에서 옷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할 것을 말하고 있다.
- 의류 업체는 비용을 낮추어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가 낮은 개발 도상국에서 옷을 만들고 있으며,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은 악조건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 글쓴이는 '결론 ④'에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라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44~24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① 05 ⑤ 06 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07 ② 08 ② 09 ③
10 ⑤ 11 ③ 12 ③ 13 ② 14 ⑤

- 이 글은 논설문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 이 글에서는 다양한 서술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A 기업과 B 기업의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가)에서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③ (가)에서 사회 현상을 소개하고, (나)와 (다)에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④ (가)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마)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작 디자이너는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여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디자인 도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04 이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는 행동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05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이 담긴 글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주체적 관점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 여부를 생각해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사고 과정을 추론할 필요는 없다.

06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의류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의류 업체가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의류 산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임을 썼다.	☐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원인이 비용 절감 때문임을 썼다.	☐
완결된 하나의 문장으로 썼다.	☐

07 (라)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을 당하고,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디자인 도용 업체에 관한 언론의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 디자인 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의류 업체들이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원작 디자이너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④ 최신 유행만을 좇는 소비자들의 풍조가 바뀌면 제품을 빨리 생산하려고 디자인을 도용하는 의류 업체들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⑤ (마)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이 길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 원작 디자이너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08 이 글은 글쓴이의 관점과 생각이 제시된 논설문으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글은 수필이다.

09 기업은 옷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며, 소비자는 옷을 유행의 척도로 생각하여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옷을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0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다. 글쓴이의 주장으로 보아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옷을 소비해야 할 필요성을 독자가 느끼는 것은 올바른 예상 반응이지만, 독자가 옷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11 면화는 천연 섬유의 재료지만, 면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살충제가 사용되므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를 통해 한 해 동안 약 800억 점의 의류가 생산되고 그중 약 600억 점의 엄청난 의류가 소각되거나 매립됨을 알 수 있다.

④ (나)를 통해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타고 동식물을 병들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가)를 통해 합성 섬유는 매립해도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12 (라)에서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업들이 노동력 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④ (다)에서 의류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옷을 만드는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하였다.

② (다)에서 개발 도상국 노동자들은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의류 업체들은 옷을 더 빨리 생산하고 많이 판매하여 이윤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다고 하였다.

13 글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여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고,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옷을 소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옷을 구매하는 것은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과 거리가 멀다.

14 글쓴이의 주장과 관점이 담긴 글은 주체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즉 독자 스스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신의 생각은 배제한 채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비판적 읽기의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확인 문제 ①

251쪽 1 ① 2 ②

- 1 영상에서 뉴욕 교육 당국은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금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와 언제나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자녀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수업 중에 휴대 전화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다.
- 2 이 영상에 나타난 영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금지 후 성적 우수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성적 하위자는 이전에 비해 성적이 14퍼센트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 문제 ②

253쪽 1 ② 2 입론 3 ④

- 1 사회자는 논제 선정의 배경과 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토론을 할 때 사회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⑤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토론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③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교내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2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중 입론 과정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 3 '찬성 1'은 학생들은 독립적인 존재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하려는 의지를 꺾으므로,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

①	입론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증함
②	반대 신문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함
③	반론	상대측 논증의 오류를 지적하며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함

확인 문제 ③

255쪽 1 ③ 2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④

- 1 '반대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과 같은 예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응급 상황을 언급한 것은 '찬성 1'이다.
- 2 '반대 1'은 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휴대 전화만 보는 등 일상생활에서 휴대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 성인보다 높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을 근거로,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1'은 강제로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으므로,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필수 쟁점은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다.
- 3 ①은 반대 신문이다.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과정이지만, 상대측의 의견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답풀이| ①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 입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②, ③ '찬성 1'은 '반대 1'의 입론 내용의 허점을 지적하여 반박하고 있다.
⑤ 반대 신문 과정에서 상대측의 질문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 대답하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확인 문제 ④

257쪽 1 ③ 2 ④

- 1 '찬성 측'은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과 휴대 전화를 이용한 수업 사례 등의 근거를 들어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휴대 전화는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토론의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이다.
- 2 '반대 1'은 다양한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찬성 2'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찬성 2' 토론자를 무시하며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확인 문제 5

259쪽 1 ⑤ 2 ① 3 ④

- 1 '반대 측'은 반론에서 휴대 전화가 유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④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이다.
 ② 반대 측 주장의 내용이다.
 ③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이다.
- 2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대신 직접적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 2'의 반론 내용이다.
- 3 사회자는 ㉠에서 이제부터 반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토론 순서를 안내하고, 발언 순서에 따라 다음 발언할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266~269쪽

01 ⑤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⑤ 07 ③
 08 ② 09 ③ 10 ① 11 ④ 12 1.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논증을 지적한다. 2. 자기 측 논증의 논리성을 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한다.

- 01 제시된 글은 토론으로, 토론은 정해진 논제를 중심으로 찬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상대측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토론 참여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또한 토론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므로 토론 참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일반적인 토론의 절차

토론 시작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자들을 소개하며, 토론 규칙을 설명함
토론 과정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함
토론 후	사회자가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후, 토론을 마무리함

- 02 이 토론에서 사회자가 규칙을 위반하는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사회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제시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③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한 후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⑤ 사회자는 토론자를 지목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하여 토론 참여자들이 순서에 따라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03 '반대 측'은 <보기>의 필수 쟁점에 대해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하여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 04 '찬성 1'은 입론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음을 근거로 들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은 휴대 전화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은 허용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려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 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도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면,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05 '반대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29.2퍼센트)이 성인(11.3퍼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06  **원자생의 풀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A]는 상대측 주장의 모순, 자료나 논리 전개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확인하고 질문하는 행위인 '반대 신문'에 해당해, 반대 신문은 보통 상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에 그 입론의 내용에 대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A]는 반대 측 토론자의 반대 신문 과정으로, 상대측의 주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하는 단계이다.

- 07 ㉠은 사실과 가치 판단에 기초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논제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논제는 기여 입학제 허용 여부를 논하는 ③이다.

[오답풀이] ①, ⑤ 참이나 거짓이나 사실의 진위 여부를 논하는 사실 논제이다.

②, ④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 등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가치 논제이다.

08 '찬성 2'는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2'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주장에 과장된 면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필수 쟁점은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임을 알 수 있다.

09 '반대 1'은 '찬성 2'의 발언 중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적절한 근거 없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인 '찬성 2'는 휴대 전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논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논리에 맞지 않은 점을 말할 때 이를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충고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반대 1'은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찬성 2'를 비방하고 있다.
④, ⑤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할 말을 하며 토론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10 '반대 1'은 '청소년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휴대 전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찬성 1'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반대 1'과 '찬성 1' 모두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④ '찬성 1'의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반대 1'의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11 <보기>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통해 수업 중 잘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을 공부하는 학생의 사례이다. 이는 인터넷 강의가 일상화되었으며, 휴대 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찬성 2'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들 수 있다.

12 반대 측과 찬성 측은 각각 상대방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논증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더 합리적임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자기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논증을 지적해야 함을 썼다.	☐
자기 측 논증의 논리성을 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해야 함을 썼다.	☐

01 이 글은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 싸면서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들이 나와 빠른 옷 소비가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해 (다)에서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며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 (가)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가상의 기업을 설정한 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아니다.

ㄴ.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논설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02 <보기>에서는 신발의 제작 및 운송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여 속도로 승부를 보기로 한 외국의 신발 제조 업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 경쟁을 그만두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는 최신 상품을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신발 제조 업체는 이윤을 얻으려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스마트폰과 새로운 공장 시스템을 통해 주문과 제조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③, ⑤ (다)에서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파는 기업의 사업 전략에 소비자들 열렬하게 호응하였음이 나타난다. <보기>의 기업도 이를 예측하고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했을 것이다.

03 **완자샘의 풀이**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자.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규칙을 설명하고 논제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또한 토론의 절차에 따라 발언 순서를 제시하고, 토론 중간에 질문과 요약을 통해 토론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야 해. 또한 토론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제지해야 하지.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참가자에게 찬성 측의 반대 신문, 찬성 측의 입론, 반대 측의 반대 신문 등을 해야 할 차례임을 제시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모두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 이 토론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4 ㉠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은 상황에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을 주장한 것이지 교내 휴대 전화 규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실 상황을 제시하고,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의 규제로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③ 휴대 전화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말하며,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사회자는 토론 순서를 어기고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한 '반대 1'을 제지하여 토론 순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⑤ 수학 시간이나 과학 시간의 휴대 전화 활용 방법을 사례로 들며 '반대 1'이 끼어드는 바람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발언을 이어서 하고 있다.

- 05**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라는 근거를 들어 대답하고,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였다. 한편 '찬성 2'가 입론을 할 때 토론 순서를 어기고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한 '찬성 2'에게 '찬성 측 토론자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냐'며 비방하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참고 자료 ++

상대방의 주장을 평가하는 기준

신뢰성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나 자료가 믿을 만한지를 따져 보아야 함
타당성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함
공정성	상대방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를 판단해 보아야 함

고득점 평가 문제

276~277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5 ⑤ 06 반론

- 01** (가)에서 옷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를 문제 상황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는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빠른 옷 소비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므로 양측이 입론한 후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반대 신문을 한다.

④ (가)의 글쓴이는 빠른 옷 소비를 반대하고 있다.

⑤ (나)와 같은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의 주장과 달리 빠른 옷 소비 현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필요하다.

- 02** (가)의 글쓴이는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비싼 옷 대신 저렴한 옷을 자주 구입하자는 의견은 글쓴이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가)의 글쓴이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가)에서는 옷의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서 공정하게 생산된 옷을 소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③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옷을 고를 때는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여 고르라고 권고하고 있다.

- 03** '찬성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는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반대 측에서 <보기>와 같은 반대 신문을 했다면, 찬성 측은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이 꼭 필요한 상황과 관련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보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는 독립된 존재인 학생들은 개인적인 소지품을 어디에서든지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05** **완자쟁의 풀이** 토론의 참여자는 사회자와 토론자가 있는데, 사회자와 토론자의 역할을 잘 구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특히 토론자는 찬성과 반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반면, 사회자는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

(나)는 토론으로, 토론의 사회자는 논제와 그에 대한 찬반 측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말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06** **완자쟁의 풀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 사회자가 논제를 제시한 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번갈아 가며 입론과 반대 신문을 하지. 그 과정을 마친 후, 서로의 입론 내용에 대한 반론을 해. 이러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를 이해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나)에서 중략 이후 '반대 1'과 '찬성 1'의 발언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반론'에 해당한다.